

투자통상분야의 장·단기 비전과 정책방향



<전체 요약>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남의 투자통상정책이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제통상환경질서에 순조롭게 부응하는 새로운 투자통상방향과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기지표들도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충남은 2010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삼고 보다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계 경제지표,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충남 투자통상의 향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통상 전략을 투자통상, 국제협력, 통상지원의 3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충남 투자통상 목표

목표설정은 정책을 이끄는 등대이며 목표가 없다면 충남의 투자통상정책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청남도도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통상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와 민간교류 확대 및 대백제전 성공지원-인상 익스포의 성공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통상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010년,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의 충남의 투자통상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충남의 수출

2010년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로 충남은 수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수출 1위와 2위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이며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충남수출에 있어 호조이며 중국의 경제회복은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기준성장하(6% 성장)에서 충남은 2015년경 560억불, 2020년경 750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7% 성장)에서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930억불 수출당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저성장 시대가 예상되나 과거 연평균 12%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던 저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총남은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총남의 농식품 수출

총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기준성장하(6% 성장)에서 총남은 2010년경 4.3억불, 2015년경 5.9억불, 2020년경 7.5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7% 성장)에서 2010년경 4.3억불, 2015년경 6.2억불, 2020년경 8.4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총남 또한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목표를 재설정해야한다.

총남의 1,2위 수출품목인 인삼과 배가 정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집중육성 품목이며 총남의 농식품 1위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2010년 5억불 수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남이 정부목표에 부응하려면 2020년 10억불 이상 수출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목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총남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만한 목표이다. 총남 농식품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총남도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총남의 외자유치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125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16.7%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2009년 총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남도의 적극적 유치노력과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및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09년 9월 현재 15.4억불로 이미 2009년 목표치인 13억불을 넘어섰으며 세계투자보고서의 예측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총남은 2010년에 15억불, 2012년에는 15억불 이상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UNCTAD가 241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매력적 투자유치지역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남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와의 치열한 유치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가발전전략산업 및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총남 투자유치 전략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제수지의 안정, 선진기술이나 경영노하우 습득,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각 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을 지정하고 치열한 투자유치전을 치루고 있다.

2008년 기준 총남내 지역별 외국인 투자건수를 살펴보면, 총남내 15개 지역 중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1> 총남지역 외국인 투자유치현황(2008년 1월 기준)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200	97	7	6	44	6	7	2	9	1	1	1	3	4	1	11
%	48.50	3.50	3.00	22.00	3.00	3.50	1.00	4.50	0.50	0.50	0.50	1.50	2.00	0.50	5.50

현재 총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분포는 총남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며 이로 인한 지역내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총남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상장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외국인보유주식 수, 외국인주식보유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전략 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한 편이다.

현재, 총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은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첨단 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이나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이외에 첨단문화 사업과 농·축산 바이오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표-2> 총남지역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현황(2008년 1월 기준)

계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소재산업	석 유 화 학	기계장비 제 조 업	서비스	비금속 광 물 제 조 업	의 약 제 조 업	식 품 제 조 업	기 타
200	38	72	4	43	10	8	2	5	18
%	19.00	36.00	2.00	21.50	5.00	4.00	1.00	2.50	9.00

□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위주 유치

투자유치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위주의 사업,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또는 사회 후생차원의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외국인 투자유인전략과 실천매뉴얼 작성

외국인 투자유인전략은 전략수립과정, 전략의 실행 및 평가과정, 사후관리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은 후속투자의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기존 외국투자 유치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이의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등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인전략체계 매뉴얼을 추진 프로세스별로 작성하고 추진인력과 필요자원 등 조직화 요인들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화방안 강구

외국어에 능통하고 관련 유치업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구성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투자유치 조직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 전문 컨설팅업체를 발굴하여 협력자로 활용하고 해외 홍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해외투자유치 광고 및 홍보를 전담할 글로벌 전문 광고대행조직을 활용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기관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충남지역 특화산업정책과 연계전략 수립

지역특화전략의 경우 정부의 자금, 판로지원 등 관련 특혜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인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은 전자 정보 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

해야하며 전략사업의 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클러스트가 형성되면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투자지속 및 확대 방안

국내기술이 부족한 수입대체품목의 해외 제조사를 도내 유치함으로써 국내 소재산업의 기술파급효과 증대 및 관련기업의 기술선진화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유치국 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품 및 소재연계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활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Research & Development Center)의 유치

외국 기술 선도기업의 연구센터의 기능은 결국 산·산기술 협력을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동시에 현지의 기초연구기관이나 국내기업의 기술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시 국내 고급 기술인력의 수준향상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 기술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투자유치를 통한 품질개선 및 선진 경영관리의 파급 및 전수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와 함께 병행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해야 할 경영기법이나 노하우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상호 전략적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 정보공유 및 교육세미나를 통해 외국 선진 관리기법을 배우고 이러한 지식경영을 유도·촉진시켜야 한다.

□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평가

기존 해외투자유치 마케팅 및 성과결과에 비용 및 수익(편익)에 대한 평가를 통한 투자관련 조직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외투자유치 조직과 공로자에 대한 포상실시로 동기부여를 마련해야 한다.

□ 기타 투자유치방안

국내 유망 발명제품에 대한 해외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투자유치 성공에 따른 성공사례의 영어판 및 영어사이트를 만들어 전문 홍보 및 광고대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3.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충남은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역교류를 다변화해야 한다. 충남은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지역의 홍보와 FTA 체결확대 등 세계 무역질서개편에 따라 변화된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상품의 수출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장에서는 충남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교류대상 국가와 자치단체 선정

과거 미국과 일본 및 선진국 중심의 교류에서 브릭스¹⁾, 친디아²⁾ 등 교류폭을 넓히고 다국가 다지역 선정보다 중점국가 중점지역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류대상 국가 및 지역 선정기준을 ① 행정, ② 서비스, ③ 자원, ④ 상품, ⑤ 자본, ⑥ 기술, ⑦ 노동력, ⑧ 성장잠재력, ⑨ 문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재정립하고

교류대상 분야 또한 ① 충청남도 고유한 특색분야, ② 지역이미지 상징으로 승화 가능한 분야, ③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④ 공동관심사가 있는 분야, 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⑥ 교류대상 국가의 needs가 있는 분야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교류대상국가의 needs가 있는 분야는 사업자본, 인적자본, 지식자본, 인프라, 자연자본, 공공제도적 자본으로 세분화해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표-3> 교류대상국가의 needs 분야

분야	내용
사업자본 (Business capital)	농업, 공업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동력 운송수단
인적 자본	사람의 건강 영양 기술 (사람들이 경제적 생산성을 갖추기 위한

1)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
2) 중국과 인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부르는 용어

(Human capital)	전제조건
지식 자본 (Knowledge capital)	과학적 기술적 노하우(물리적 자연 적자본의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인프라 (Infrastructure)	도로 전력 물과 위생 공항과 해양 통신시스템 (사업의 생산성을 규정하는 필수 투입요소)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건전한 생태계와 토양, 경작가능한 토지, 생물 다양성 (인간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
공공제도적 자본 (Public institutional capital)	상법 사법제도 정부서비스와 경찰 (분업이 평화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

□ 성과 중시 매니지먼트 (Result-based management 즉 RBM)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는 지자체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 등 국내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교류'형이며 교류사업의 형태는 인적교류, 문화·스포츠키포류, 기술·학술교류, 산업·경제교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승인전 사전 교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조인식 참여, 지자체장 취임 축하 방문, 상대 지역의 중요행사 참여, 우수사례 발굴견학, 상대지역에서 우리 자치체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 workshop 참가, 부수적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단발성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 활동을 input, output, outcome, impact라는 로직의 흐름에서 그 실적이나 결과(output, outcome, impact)의 달성도로부터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전략이 필요하다. 올바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중심적 국제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실적이나 결과에 관한 정보를 행정활동의 관계자에 대해서 공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확보해야한다.

□ 주민참여 활성화

오늘날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주도의 교류가 일반적이다. 그 원인은 국제교류사업이 대부분 주민 발의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의 국제화 역량강화로 귀결되지 못하고 고위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통제와 분석 없이 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이 주권행사의 일환으로서 국제화의 주체로 나서고 지자체는 지원보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근래 효율적인 국제협력력을 위해 민관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구, 지역주민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중심의 현재의 국제협력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민간 주도형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협력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 국제협력 인재 발굴과 양성

국제협력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적자원 발굴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1차적으로 국제협력력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staff의 국제화 수준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는 충청남도 도청의 전 공무원과 도민 특히 미래에 국제화된 사회의 주역이 될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국제협력 인재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충남도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 기업, 학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어 학습 동아리 구성을 적극 장려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contest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상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교류를 염두에 둔 상황설정 등 실용적 외국어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결혼 이민자의 능력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마인드셋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다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적 과제에 참여하고 그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티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제 발문티어 활동

최근 국제협력의 주된 조류는 '교류'형에서 '협력'형으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충남 도청과 상대국 지자체 간의 봉사단 파견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촌개발, 정보통신, 환경,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봉사단의 목적은 협력대상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과 해당 국가와의 우호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며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실천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활동은 충남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충남의 수출기업이 현지에 진출 시 기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통상지원을 위한 전략

충남은 한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LCD 등 견실한 제조업과 IT산업을 토대로 전국수출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흑자를 대폭 만들어내어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충남 차원에서의 도내 수출진흥을 위한 통상지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부족과 두려움으로 해외마케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참여하는 업체(농가)라 하더라도 영세성으로 인해 무역 전문직원 채용 등 해외영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회사대표 1인이 국내외 마케팅까지 전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상품은 좋으나 내수에 머물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자생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기 위해서는 통상지원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의 통상지원 활동은 대기업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도내의 중소기업 및 농수산 기업에 지원활동을 집중하는 전략이 효율적으로 보이며 잠재력이 큰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촉진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한다.

충남은 농수산물과 인삼가공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수산물 수출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려는 농식품부 및 지식경제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충남의 농수산물 및 인삼수출을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충남에서는 제조업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 인삼산업지원 등 통상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참여업체의 경우도 무역실무 능력 부족, 언어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 인식이 희박하여 사후관리에 비중을 둔 지원시스템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남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가 있지만 이들 대기업과 충남 소재 중소기업과 통상활동 측면에서 협력관계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의 수출 역량을 연계하여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급변화하는 투자통상환경에 따라 투자통상전략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지역 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타 국가와 교류 및 협력하는 일은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통상정책의 비전과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타겟 기업군을 설정하고 각 기업에 맞추어진 효율적 기업지원시스템과 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추어야하며 도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지원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관주도의 교류에서 국제협력이 부각되는 시점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내야하며 이에 대한 지원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통상정책의 수행을 위해 투자통상 전문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정된 예산과 인원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내 담당자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적절한 성과의 보상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 시간,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통상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통상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목차>

제1주제: 장·단기 투자통상 목표수립

제2주제: 통상지원 분야

제3주제: 투자유치 분야

제4주제: 국제협력 분야

<전체프레임>



장·단기 투자통상 목표수립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 충남의 2010년 수출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상품의 수출호조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충남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은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전망
- 충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되며 2012년까지 23% 성장 후 10%대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는 2009년 9월 현재 15.4억불로 이미 2009년 목표치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5억불까지도 유치가능할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
- 충남의 기업유치는 2009년 9월말 현재 민선4기 목표의 273%를 달성 하였으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과 투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 따라서 유치기업의 수보다 먼저 유치기업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목표설정은 정책을 이끄는 등대이며 목표가 없다면 투자통상정책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음
- 충청남도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통상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와 민간교류 확대 및 대백제전 성공지원·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 등을 통해 2010년 외자유치 15억불, 기업유치 500개, 수출 420억불, 농수산물 수출 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변화하는 국제투자 환경질서에 순조롭게 부응하는 새로운 투자통상방향과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실정

<표 1> 2010년 충남투자통상 목표

외 자유치	15억\$
기업유치	500개
수출	420억\$
농수산물 수출	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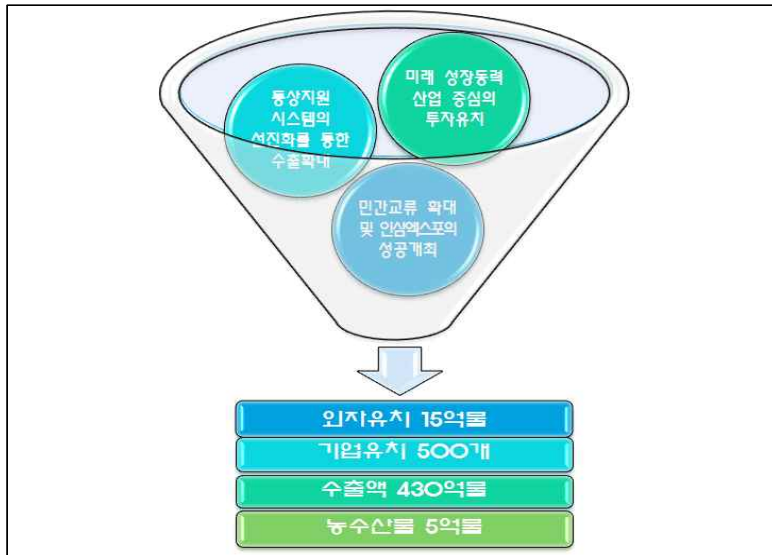


- ①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 ② 통상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
- ③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와 민간교류 확대
- ④ 대백제전 성공지원·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 기반 조성

- 본 연구는 “투자통상분야의 장·단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위한 1차 연구로써 우선 세계 경제지표,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0년 충남 투자통상의 목표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통상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와 더불어 국제협력, 통상지원, 투자유치의 3개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통상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것임

<그림 2> 2010년 충남투자통상 목표



II. 국내외 경제현황³⁾

1. 국내경제 흐름

3)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요약 및 발췌

◆ 실물경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시현

- 국내경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
 -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2.6%를 기록하면서, 1/4분기(0.1%)보다 성장세가 크게 확대
- 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도 완화
 - 소비자심리지수⁴⁾(8월, 114)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제조업업황지수⁵⁾(8월, 86)도 6개월 연속 개선

◆ 그러나 경제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

- 실물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불안, 수출감소 등 불안 요인도 상존
 -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폭은 6월 이후 크게 개선 되었으나, 제조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수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 완화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급격히 감소

2.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2.3%의 완만한 성장 예상

-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2010년에도 지속
 - 4)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형편이나 경기, 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
 - 5) 100은 미래경기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임을 말하며, 100 이상은 경기상승, 100 이하는 경기하강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의미

- 경기부양책의 국제공조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 2009년 재정확대 기조가 2010년에도 유지됨에 따라 성장모멘텀이 어느 정도 유지될 전망
-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4%대 후반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경제 및 세계교역 회복에 기여

- 하지만 경제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 민간부문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서 성장 동력이 취약
 - 잠재적인 불안요인도 본격적인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세계교역도 회복세는 보이나 2009년 감소폭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전망
- 출구전략⁶⁾이 다시 경기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조기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나 경제 정상화에는 걸림돌로 작용

◆ 그러나 2010년 선진국은 1% 내외의 저조한 성장 예상

<표 2>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8	2009	2010
세계(시장가격 기준)	2.2	-1.9	2.3
선진국	0.7	-3.3	1.2
신흥국/개도국	5.6	1.0	4.9

자료: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원)

- 미국은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느린 회복으로 인해 2010년에도 성장세는 저조할 전망

6) 경기침체에 경기부양을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

- 유로지역 역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회복에 힘입어 1% 내외 성장
- 일본도 주로 수출에 의존하여 1% 미만의 미약한 성장이 예상

◆ BRICs⁷⁾는 7.4%의 고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중국은 경기부양책 지속과 수출호전으로 2010년 9.8%의 고성장이 예상
- BRICs 국가도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나 러시아는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 인도는 농업부문과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의 회복 등에 힘입어 7%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망
 - 브라질은 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원가격 상승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러시아는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3. 국내경제 전망

◆ 2009년 2/4분기 이후 경기는 가파른 상승세로 2010년 경제성장률은 3.9%에 도달

- 2009년 1/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견고한 상승세를 시현
- 한국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 3.9%에 도달
 -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플러스 성장,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만 달러대에 재진입

<표 3> 경제성장률 예측 (전년동기 대비)

	2009							2010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4.2	-2.2	-3.2	-1.4	4.3	1.4	-0.8	3.9

7)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경제 4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자료: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원)

◆ 2010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

-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출이 12.2%의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
 - 2009년 하반기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로 인해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22.7%에서 하반기에는 -8.6%로 감소세가 둔화
- 심리 회복과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내수는 증가세로 전환
 - 2010년에는 일자리 확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내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 -0.3%(2009) → 3.1%(2010년)

-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9년 중 전년대비 0.3% 감소할 전망
- 2010년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나 가계부채의 증가, 이자율 상승은 위험요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⁸⁾: -12.3%(2009년) → 8.2%(2010년)

- 201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8.2% 증가할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수요 증가로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 활동이 재개
 -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는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 2.8%(2009년) → 1.9%(2010년)

- 2010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폭 축소 가능성,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1.9% 증가에 그칠 전망
 - 정부의 SOC 투자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지속되겠지만 전년과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민간투자는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주거요, 비주거용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개선되겠으나 미분양 주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소비자물가: 2.8%(2009년) → 3.0%(2010년)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측면보다는 비용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전년대비 3.0%의 상승세가 예상

◆ 실업률: 3.7%(2009년) → 3.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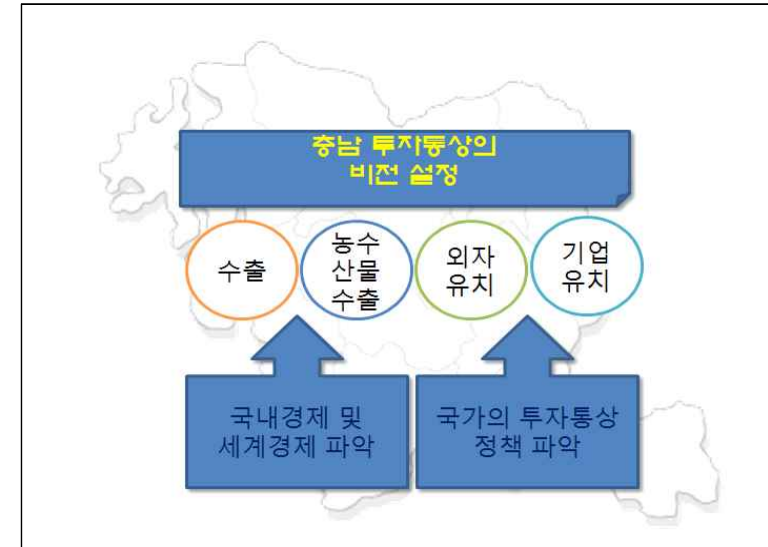
-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실업률은 3.5%로 소폭 하락하고 일자리 창출폭은 15~2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과 기업들의 고용량 유지노력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상황

8) 설비투자는 건물·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설비에 새로 투자되는 증가분

III. 연구방법

- 충남의 경제현상을 일일이 분석하여 충남 투자통상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시간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우리나라 수출입의 향후 전망과 부처별 투자통상정책의 장기목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충남의 투자통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 우선 부문별 국가 투자통상의 전망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부응하는 충남 투자통상의 비전을 설정

<그림 3> 연구방법



IV. 충남의 투자통상 목표설정

1. 수출

1) 국내 수출전망

-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9년에는 각각 15.7%와 14.8%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2010년은 각각 12.2%와 15.0%의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표 4>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율 전망

(단위: %)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삼성경제	수출증가율	-22.7	-8.6	-15.7	12.2

연구소 전망	수입증가율	-34.5	-16.0	-25.4	17.8
LG경제	수출증가율	-22.7	-6.6	-14.8	15.0
연구원 전망	수입증가율	-34.5	-17.8	-26.3	23.7

- 삼성경제 연구소의 예측에 의하면 선박 수출 호조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가격 상승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2010년 수출은 3,990억불에 달할 전망

<표 5> 국내 수출입 예측 (단위: 억불, %)

	2009							2010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수 출	744	911	1,655	936	965	1,901	3,556	3,990
수 입	714	734	1,447	862	939	1,801	3,248	3,828

자료: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원) 재판집

-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수출증가에 힘입어 2010년 수출은 3,828억 불로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축소시킬 전망
- 2010년 무역수지는 수출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흑자규모가 2009년의 308억불에서 162억불로 축소

2) 충남 수출전망

◆ 충남은 수출 406억불 ~ 421억불 달성이 예상되며 260억불 ~ 270억불의 수입이 예상

- 국내 수출전망을 통해 2008년 충남의 수출입액을 기준으로 충남의 수출입 전망을 예측해보면 2010년 충남의 수출은 406억불 ~ 421억불 달성이 예상되며 260억불 ~ 270억불의 수입이 예상되어 15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표 6> 충남 수출입 전망 (단위: 천불)

		2008	2009(예측)	2010(예측)
삼성경제 연구소 전망	수출	42,936,207	36,195,223	40,611,040
	수입	29,556,113	22,048,860	25,973,557
	무역수지	13,380,094	14,146,362	14,637,482
LG경제 연구원 전망	수출	42,936,207	36,581,648	42,068,896
	수입	29,556,113	21,782,855	26,945,392
	무역수지	13,380,094	14,798,793	15,123,504

자료: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 호조로 2010년 수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충남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증가

-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기(8.3%), 가전(8.3%), 반도체(11.1%), 디스플레이(21%), 자동차(5.5%), 석유화학(8.4%)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그중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는 공급능력 증가세 둔화, 수요 회복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국내업체의 원가 및 제품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디스플레이는 안정된 거래 선을 바탕으로 국내업체의 생산 및 수출이 급속히 증가
 - 석유화학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수익성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
 - 자동차는 특소세 감면, 노후차 세제혜택 종료로 내수는 정체되는 반면, 신차투입과 국산차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 충남의 수출 1위와 2위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이며 전국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2%, 35.1%로 매우 높아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표 7> 충남 10대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순위	품목명	2009.1~6월		우리 道 수출비중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액	증감율		
계		16,560	△24.0	100%	-
1	평판디스플레이	6,203	12.5	37.4	58.2
2	반도체	4,171	△28.5	25.1	35.1
3	석유제품	892	△47.1	5.4	9.4
4	합성수지	707	2.2	4.2	11.6
5	컴퓨터	674	△51.0	4.0	18.8
6	석유화학중간원료	559	△30.7	3.3	30.3
7	철강판	461	△53.0	2.7	8.5
8	자동차부품	332	△45.3	2.0	7.1
9	플라스틱제품	253	△0.4	1.5	12.3
10	자동차	156	△80.1	0.9	1.4

주: 품목기준은 MTI 3단위, 실적순위는 6월 누계기준임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 충남 제1의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회복

- 충남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홍콩, 미국, 멕시코, 일본 순이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6%로 매우 높아 중국의 경제회복이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표 8> 충남 10대 수출국 (단위 : 백만\$, 전년동기대비%)

순위	국 가 명	2009.1~6월		우리 道 수출비중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액	증감율		
계		16,560	△24.0	100%	-
1	중국	6,397	3.6	38.6	17.0
2	홍콩	1,450	△15.0	8.7	16.8
3	미국	1,308	△42.4	7.8	7.3
4	멕시코	1,242	△24.8	7.5	38.0
5	일본	1,122	△43.4	6.7	11.4
6	슬로바키아	972	25.3	5.8	66.8
7	대만	661	△42.6	3.9	16.7
8	독일	432	△45.5	2.6	11.0
9	말레이시아	401	△18.8	2.4	22.2
10	싱가포르	351	△41.5	2.1	5.1

주: 품목기준은 MTI 3단위, 실적순위는 6월 누계기준임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 중국경기가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2010년에는 경기부양책 지속과 수출호전으로 9.8%의 고성장 예상

- 중국경제는 2009년 1/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
-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중국경제의 회복을 견인
- 2010년에는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9.8%로 상승할 전망

□ 미국과 일본의 저성장 기조는 충남수출의 증가 저해요인

- 미국의 경우 경기지표 급락세가 완화되며 회복 조짐이 보이거나 2010년에도 경제성장세는 저조

-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
- 산업생산지표가 개선되고 고용감소세도 완화되는 조짐
-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은 느린 속도로 진행될 전망
- 2010년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부진

을 보완하면서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견인

- 일본의 경우 2/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가 예상되나 2010년에도 1% 미만의 미약한 성장
 - 일본경제가 2009년 2/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는 모습
 - 수출은 세계경제의 플러스 전환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나 회복력은 미약
 - 수출회복도 설비투자 회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대기업 수출비중 높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충남 평균 대기업 수출비중은 87.1%(중소기업 12.9%)로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대기업 수출부진은 충남의 수출부진으로 직결됨
 - ※ 전국 평균 대기업 수출비중 : 69.1% (중소기업 30.9%)
- 따라서 수출액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3) 충남의 수출 2020 비전⁹⁾

- 산업연구원의 수출전망에 따르면 총교역액 규모는 경상 달러 기준으로 기준성장 시나리오하에서 2004년 약 5,7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약 9,500억 달러, 2020년에는 약 1조 7,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고성장 시나리오하에서는 수출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약 1조 달러, 2020년에는 약 1조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교역규모 기준으로 2020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여겨짐

9) “한국산업 2020”(산업연구원)에서 요약 및 발췌

<표 9> 우리나라 수출전망 (단위: 경상 억불)

	2000	2004	2010	2015	2020
기준성장	2,089	2,999	4,873	6,647	8,412
고성장	2,089	2,999	5,015	7,232	9,730
저성장	2,089	2,999	4,498	5,584	6,954

자료: “한국산업 2020”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고성장화하면 2020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며 저성장화한다면 연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준성장하에서 충남은 2015년경 560억불, 2020년경 750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에서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930억불 수출당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표 10> 충남의 수출 예상 (단위: 천불)

년도	12%성장	고성장(7%)	기준성장(6%)	저성장(4%)
2010	42,068,896	42,068,896	42,068,896	42,068,896
2011	47,117,164	45,013,719	44,593,030	43,751,652
2012	52,771,223	48,311,920	47,268,612	45,501,718
2013	59,103,770	52,005,906	50,104,728	47,321,787
2014	66,196,222	56,143,170	53,111,012	49,214,658
2015	74,139,769	60,776,905	56,297,673	51,183,244
2016	83,036,541	65,966,689	59,675,533	53,230,574
2017	93,000,926	71,779,247	63,256,065	55,359,797
2018	104,161,037	78,289,312	67,051,429	57,574,189
2019	116,660,362	85,580,584	71,074,515	59,877,157
2020	130,659,605	93,746,810	75,338,985	62,27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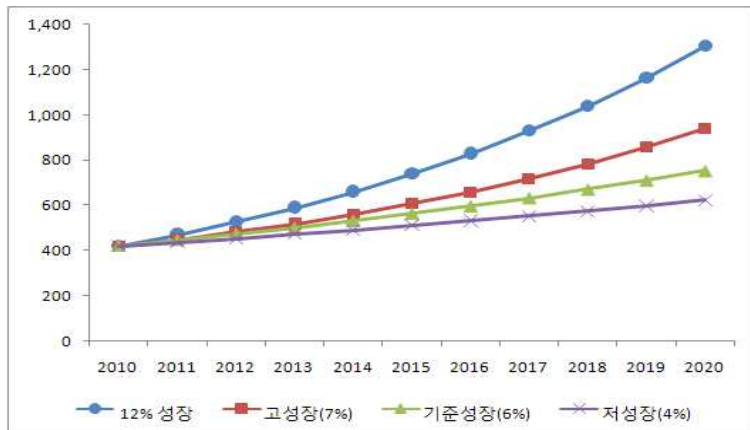
주: 세계 경기 위축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성장에 맞춘 전망치

◇ 충남은 2000년~200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2%를 유지 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경제성장을 둔화와 세계시장 에서 신흥개도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이어서 향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2008)”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경제성장을 둔화와 세계시장에서 신흥개도국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2020년까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충남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전자 등은 세계시장에서 기술, 가격, 브랜드 인지도 면에 있어 당분간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충남의 수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

<그림 4> 충남의 수출 예상 (단위: 억불)



◇ 충남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은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전망

<그림 5> 충남의 2020 수출 비전



2. 농식품(농림수산물) 수출10)

1) 국내 농식품 수출

◇ 세계 농식품 교역규모 증가로 농식품 수출의 기회요인 증가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FTA 체결 확산 등으로 식품 교역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계청은 2015년에 세계 인구가 약 7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농식품 수출의 기회요인 증가

가. 국내 농식품 수출 현황

10) “2009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농촌경제연구원)과 “2009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췌 및 요약

◇ 2009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53억불 달성이 예상

<표 1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현황

① 신선농식품: 전년과 동일한 수준(0.1%)인 309백만불 (증가) 감치(4.9%), 딸기(68.6), 장미(51.3), 돼지고기(22.5), 팥이버섯(240.4) (감소) 파프리카(-8.7%), 배(-28.6), 유자차(-10.5), 양란(-56.5),국화(-1.6)
② 가공농식품: 전년대비 -0.3% 감소한 1,215백만불 (증가) 커피조제품(0.7), 자당(1.8) (감소) 권련(-3.3), 라면(-2.7), 소주(-6.8)
③ 수산식품: 전년대비 -2.2% 감소한 771백만불 (증가) 고등어(441.9), 전복(71.7), 김(7.8), 바지락(101.8) (감소) 참치(-21.4), 삼치(-11.9), 오징어(-34.4), 미역(-20.9)

자료: “2009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농촌경제연구원)

○ '09.7.21일까지(잠정) 23억불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하였으나 2009년 53억불 수출은 달성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하반기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상존
 - 긍정적 요인: 중국·러시아 경기회복 전망, 검역협상을 통한 수출 가능 품목 확대, 참치 국제가격 상승 등
 - 부정적 요인: 환율하락, 유가상승, 주요국 경기침체 장기화

나. 정부의 농식품 수출목표

◇ 정부는 2012년까지 농식품 100억불 수출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농수산물식품 산업발전의 성장동력을 제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08년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7대 정책 과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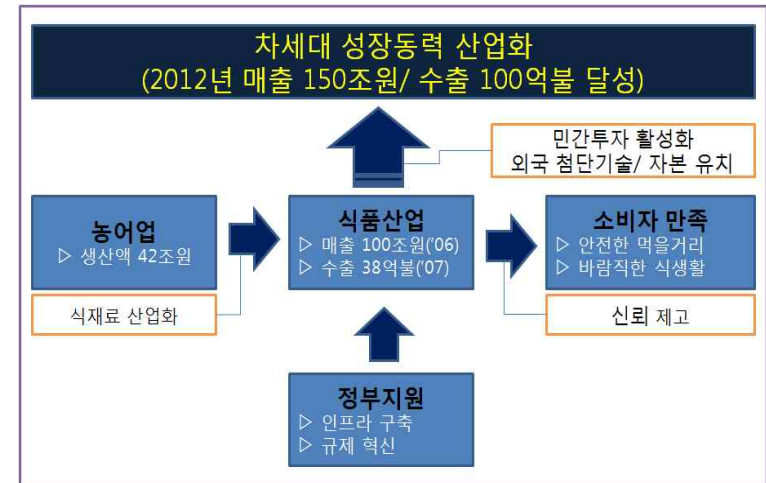
<표 12>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 주요내용

7대 정책과제	주요 내용
식품 R&D 투자 확대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식품기업 투자 활성화
농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100억불 수출 달성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산업화	한식 세계화 달성
식재료 산업 활성화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농어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동반성장 도모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	소비자 신뢰 제고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는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에서 2012년까지 농식품 매출 150조원 수출, 100억불 목표 설정¹¹⁾

<그림 6> 정부의 농식품 수출 목표



자료: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농림수산식품부)

11)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여 농식품 100억불 수출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생산유발액은 126억불, 부가가치 유발액 45억불 및 56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 2012년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매년 23%¹²⁾ 수출증가 필요

<표 13>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2008	2009(예측)	2010(예측)	2011(예측)	2012(예측)
농식품 수출	4,403	5,300	6,519	8,018	9,863

주: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로 추정하였으며 세계 경기 위축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성장에 맞춘 전망치

○ '08년 9월말 기준 농수산물 수출액은 30.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와 정부정책 여하에 따라 향후 연 23%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전략

- 주력수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
- 일본·중국·미국·러시아·아세안 등 우리나라 5대 농식품 수출시장의 수입규모는 2,947억불('07)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9%에 불과
 - 5대 농식품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을 3% 수준만 유지하여도 1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음
 -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한·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시장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출기회는 훨씬 커질 것임
-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농수산물 중심의 수출 정책을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
- 농식품 제2위 수입국인 일본시장(1위는 미국)을 분석해 보면 채소류, 화훼류, 가공식품, 수산물 등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12)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당시 22%였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본 연구에서 23%로 상향 조정하였음

수 있는 경합품목의 수입이 100억불에 달함

- 일본의 경합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이미지가 높아진 중국 동남아 등을 개척하여 시장다변화를 유도하면 100억불 수출시장을 찾을 수 있음

영세한 수출 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해 나가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강화

○ 농림수산물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9년도 농식품 수출선도 조직” 육성사업 대상자로 13개 사업자를 확정·발표

<표 14> 품목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품목	수출선도조직
파프리카(2)	농산무역, 러브파프(연합조직) ※ 러브파프 : 경남북 수출업체·농가 등 4개소가 연합
배(2) :	팜슨, 천안배원예협동조합(단지연대) ※ 천안배원협 :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수출단지연대
김치(2)	대상FNF, 한울
딸기(1)	울원코리아
새송이버섯(1)	머쉬엠(연합조직) ※ 머쉬엠 : 7개 버섯 수출업체·농가가 참여하여 설립
감귤(1)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단감(1)	모닝팜
백합(1)	대동농업협동조합
장미(1)	로즈피아(연합조직)
유자차(1)	한성푸드

자료: www.kati.net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은 농식품 수출업체 주도로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선택 등 재배단계부터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해외마케팅, 수출 등 전 과정을 일관 수행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선도하는 조직체로 내년도부터 신규로 도입·육성

-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품질 및 물류개선, 조직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됨

- 정부는 수출선도조직의 육성을 통해 수출업체 및 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2012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0개 조직 선정 계획을 상당폭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선도조직화를 통한 수출기반조성을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

□ 대표 수출품목을 정하고, 새로운 수출 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도 적극 발굴

<표 15> 품목별 수출목표 및 집중육성 품목 (단위: 백만불)

구분	07년	09년	12년	집중육성 대상품목
합계	3,760	5,300	10,000	
농식품	2,532	3,600	7,500	
신선농식품	597	800	1,350	김치, 인삼, 파프리카, 배, 돼지고기, 유자차, 새송이·팽이버섯, 삼계탕, 화훼류, 단감
가공농식품	1,935	2,800	6,150	면류, 과자류, 커피류, 연초류, 소오스류, 주류, 유제품, 천일염 등
수산식품	1,228	1,700	2,600	참치, 김, 굴, 넙치, 전복, 오징어, 봉장어, 게살, 고등어, 미역 등

자료: “2009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농촌경제연구원)

<표 16> 1억불 이상 수출품목 15개, 유망품목 30개육성

구분	품목
1억불 이상 품목	김치, 인삼, 파프리카, 돼지고기, 배, 면류, 주류, 과자류, 참치, 오징어, 김 등
유망품목	삼계탕, 버섯(새송이·팽이), 유제품, 천일염, 전복, 넙치, 굴 등

자료: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농림수산식품부)

-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전체 수출의 65% 이상이 되도록 집중화

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국제 경쟁력을 노일 수 있음

- 이들 품목의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07년기준)은 인삼 11.6%, 파프리카 49%, 유자차 34%, 밤 19%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미만으로 수출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 해외진출 기업·한식당과 연계해 식재료와 가공식품 수출을 늘려가는 방안도 추진

- 정부는 해외한식당, 해외진출기업들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식재료 수출을 통해 2012년까지 35억 달러의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구상
- 한식세계화와 연계하여 공세적 시장개척을 추진한다면 100억불 수출을 앞당길 수 있음

2) 충남 농식품 수출

◆ **충남이 2010년 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100억불달성이 전제되어야 함**

- 농식품의 수출 증가를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쉽지 않으며 현재 정부가 신규시장개척과 공격적 지원을 통해 농식품의 수출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농식품 수출전망을 국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목표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충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됨

- 따라서 정부계획안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23% 수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에는 4.9억불의 수출 달성이 가능하며 2012년 7.5억불의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17>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년도	농식품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2004	116	32.2%
2005	122	
2006	156	
2007	303	
2008	355	
2009	400(예측)	23.0%
2010	492(예측)	
2011	605(예측)	
2012	744(예측)	

주: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로 추정하였으며 세계 경기 위축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성장에 맞춘 전망치

○ 충남의 2004-2008년 연평균 농식품 수출 증가율이 32.2%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 5억불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2010년 5억불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의 농식품 수출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충남도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조직화 · 규모화 촉진, 고품질 · 안전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주력 수출품목 집중 육성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해외시장별 특성 및 차별화 마케팅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충남의 1,2위 수출품목인 인삼과 배가 정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집중육성 품목이고 충남의 농식품 1위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은 5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호조**

○ 아울러 정부의 집중육성품목에 포함되어있는 인삼과 배가 충남의 1,2위 수출 품목이며 충남의 1위 농식품 수출국인 중국의 고성장

(9.8%)이 예상되는 점은 수출 달성에 호조로 작용

- 그러나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환율하락, 유가상승, 수출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 위험요소도 상존

<표 18> 2008 충남 수출 상위품목 현황 (단위 : 천불)

품 목	수출액	품 목	수출액	품 목	수출액
1. 홍삼제품	72,015	8. 스낵류	13,390	15. 인삼가공품	6,950
2. 배	37,207	9. 오리털	12,018	16. 분유	5,107
3. 과일·쌀음료	23,505	10. 조미김	11,023	17. 양념류	4,863
4. 고추장, 장류	19,821	11. 식품첨가물	8,569	18. 김치	4,070
5. 수산 가공품	15,379	12. 냉면등 면류	8,127	19. 두유	3,596
6. 밤	15,098	13. 유아차	8,109	20. 표고버섯	2,505
7. 심비디움	14,170	14. 콩기름	7,436	21. 껌	1,842

자료: 충남 내부자료

<표 19> 충남의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합 계	중 국	미 국	일 본	동남아	기타 (유럽등)
2008년	355	84	82	58	91	40
2007년	303	85	71	63	57	27

※ '08 주요 수출국가 비중 : 중국 24%, 미국 23%, 일본 16% 順

◆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충남도의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 필요**

- 농식품부는 국민 소득 3만불 달성과 선진국 진입이 가시화되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중장기 농정대책인 "2020 농정vision"을 '09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 충남도는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시장개방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 등에 대비해 「2020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단·장기 종합대책(안)」을 마련
 - ▲단기적으로 2011년까지 농업·농촌·복지·문화·의료 등 14개 부문

524개 사업에 5조 4,086억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농업·농촌·복지부문 648개 사업에 19조 3,250억원을 투입

3) 충남의 농식품 2020 전망

◇ 2012년까지 23% 성장 후 10%대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가. 국내 농식품 2020전망

○ 산업연구원에서 추정한 농식품 증가율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전망해보면 고성장이어서 110억불, 기준성장하에서 99억불, 저성장하에서 87억불의 수출 달성이 가능

○ 그러나 정부는 농식품 집중육성을 통해 2020년 200억불 수출을 목표로
<표 20> 경상수출 증가율 (단위: %)

	부문	2005~2010	2011~2015	2016~2020
고성장	농산물	8.4	7.7	6.2
	축산물	7.4	7.1	6.0
	임산물	6.8	6.3	4.1
	수산물	6.5	6.7	4.4
기준성장	농산물	7.9	6.6	5.0
	축산물	6.8	5.9	4.7
	임산물	6.2	5.1	2.8
	수산물	6.0	5.6	3.2
저성장	농산물	6.5	4.6	4.6
	축산물	5.4	4.9	4.4
	임산물	4.8	3.1	2.5
	수산물	4.6	3.6	2.8

자료: “한국산업 2020”(산업연구원) 재편집

<표 2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년도	정부안	고성장	기준성장	저성장
2008	4,403	4,403	4,403	4,403
2009	5,300	5,300	5,300	5,300
2010	6,508	5,732	5,704	5,630
2011	7,991	6,165	6,072	5,880
2012	9,812	6,631	6,463	6,141
2013	10,713	7,132	6,879	6,414
2014	11,698	7,671	7,322	6,699
2015	12,778	8,250	7,794	6,996
2016	13,959	8,752	8,173	7,310
2017	15,253	9,285	8,571	7,638
2018	16,670	9,850	8,989	7,981
2019	18,222	10,450	9,427	8,339
2020	19,923	11,087	9,886	8,714

주: 정부안은 '12년까지 23%성장후 '20년까지 10%성장

주: 보다 정확한 예측치는 중장기 농정대책인 “2020 농정vision” 보고서 이후 작성가능

나. 충남 농식품 2020전망

○ 고성장이어서 충남은 2020년경 8.4억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성장하에서는 7.5억불 수출이 전망됨

○ 그러나 정부가 농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100억불, 2020년까지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목표설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목표인 2012년 100억불, 2020년 2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23%, 2020년까지 매년 10%정도 수출이 증가해야 하며 충남 또한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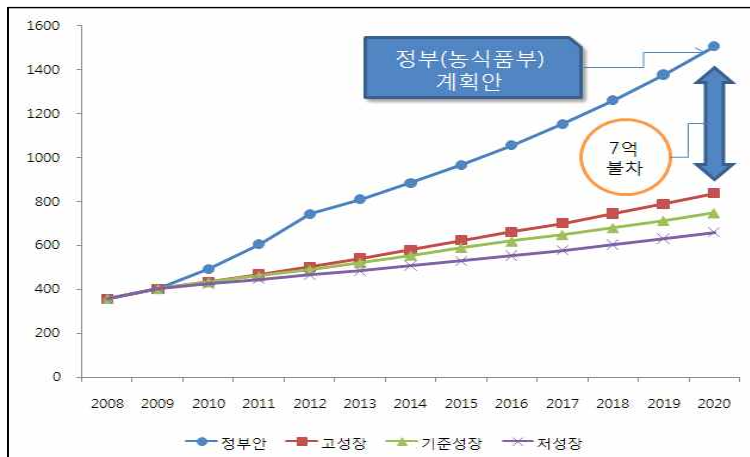
<표 22>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년도	정부안	고성장	기준성장	저성장
2008	355	355	355	355
2009	400	400	400	400
2010	491	433	431	425
2011	603	465	458	444
2012	741	500	488	463
2013	809	538	519	484
2014	883	579	553	506
2015	964	623	588	528
2016	1054	661	617	552
2017	1151	701	647	576
2018	1258	743	678	602
2019	1375	789	711	629
2020	1504	837	746	658

주: 정부안은 '12년까지 23%성장후 '20년까지 10%성장

주: 보다 정확한 예측치는 중장기 농정대책인 "2020 농정vision" 보고서 이후 작성가능

<그림 7>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그림 8>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 다만 고성장하에서의 수출과 정부목표와는 7억불의 격차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충남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극복한다면 2020년 15억불 농식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외자유치

1) 국내 외자유치 전망

가. 세계투자동향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은 부정적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1/4분기까지 세계 총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세계투자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음¹³⁾

- UNCTAD¹⁴⁾(2009)에 따르면 세계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4/4분기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4%까지 감소하였고 특히 M&A형 투자의 감소폭이 더욱 커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7%까지 급감
- OECD(2009)에서도 OECD 17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가 2009년 1/4분기에 가속화되어 2008년 4/4분기 대비 5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하락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5,000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경간 M&A 투자는 2009년 상반기 OECD 회원국의 경우 2007년 대비 60%까지 감소하였음

- 불경기로 인한 시장기대 심리 악화, 신용/대출 기준 강화, 주식시장 쇠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자산투자(equity investment) 보다는 파트너십이나 라이선싱과 같은 비자산 진입 모드(non-equity entry mode)에 보다 의존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UNCTAD의 "World Investment Prospect Survey 2009~2011"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2/3가 2009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출비용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10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6.7% 증가할 전망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1조7000억 달러(약 2050조원)로 2007년 1조9700억달러(약 2375조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예상치는 1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13)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요약 및 발췌

14)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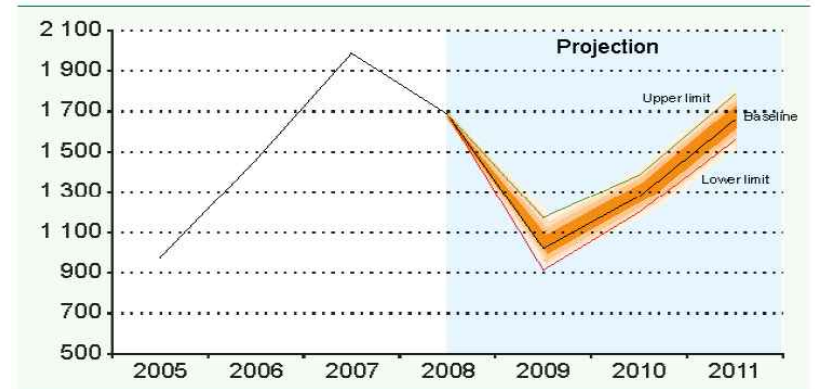
- 그러나 UNCTD는 내년 외국인직접투자가 1조4000억 달러로 회복하고, 2011년에는 1조8000억 달러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16.7% 증가할 전망

<표 23>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 (단위: 억달러,%)

	2006	2007	2008	2009 (예측)	2010 (예측)	2011 (예측)
외국인직접투자	14,600	19,700	16,900	12,000	14,000	18,000
증가율		34.9	-14.2	-29.0	16.7	28.6

자료: UNCTD 2009 세계투자 보고서

<그림 9>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전망 (단위: 억달러)



자료: UNCTD 2009 세계투자 보고서

나. 국내 외국인투자 동향

◆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09년 목표인 125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07년 105억불, '08년 117억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 '08년 기준 국가별로는 EU지역에서의 투자가 가장 많았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투자가 가장 많았음

<표 24>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국가별)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협력기구	-	-	-	-	-	-	-	-
미주지역	653	3,107	659	1,938	671	3,197	628	1,904
아주지역	2,232	3,508	1,759	4,003	2,011	2,335	2,158	3,281
EU(25개 국가)	449	4,780	405	4,977	495	4,332	443	6,333
기타지역	371	168	275	314	382	646	515	187
합 계	3,705	11,562	3,098	11,233	3,559	10,509	3,744	11,705

자료: "주요경제통상 통계"(외교통상부)

<표 25>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산업별)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10	3	10	2	11	3	16	1
제조업	746	3,075	706	4,229	684	2,688	601	3,002
서비스업	2,856	8,301	2,337	6,636	2,802	7,612	3,067	8,387
전기가스수도·건설	54	184	45	366	62	207	60	316
합 계	3,666	11,562	3,098	11,233	3,559	10,509	3,744	11,705

자료: "주요경제통상 통계"(외교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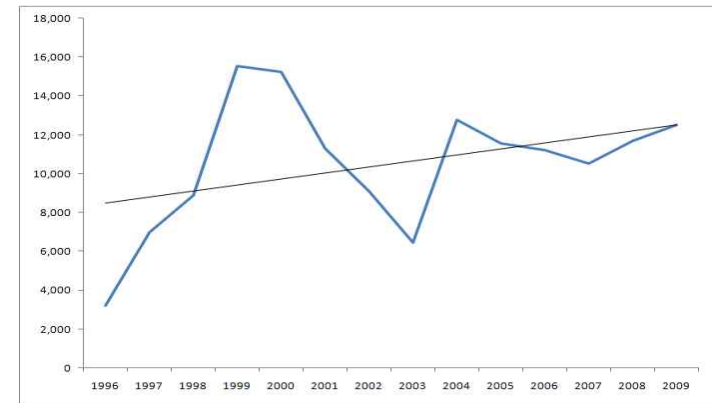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동향은 '03년 반등 이후 크게 증가하다가 '05년부터 유입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지난해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등으로 증가세로 반전

<표 26>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불, %)

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1996	3,204	
1997	6,971	117.6
1998	8,858	27.1
1999	15,545	75.5
2000	15,256	-1.9
2001	11,286	-26.0
2002	9,093	-19.4
2003	6,469	-28.9
2004	12,786	97.7
2005	11,563	-9.6
2006	11,233	-2.9
2007	10,509	-6.4
2008	11,705	11.4
2009	12,500(예측치)	6.8(예측치)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그림 10>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불)



- 우리나라의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투자유치 규제개혁, 인센티브 및 추진체계 개선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년 목표인 125억불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200억불 달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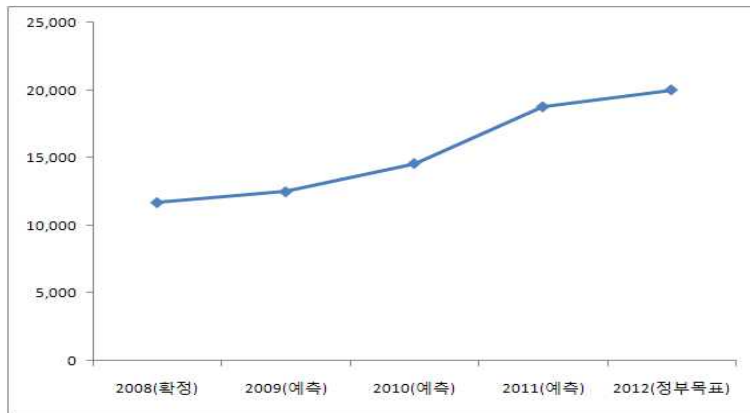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예측을 통해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예측해보면 2011년 187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¹⁵⁾
-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08년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 유입되는 환경 조성으로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 200억불 달성을 추진

<표 27>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 (단위: 백만불)

	2008(확정)	2009(예측)	2010(예측)	2011(예측)	2012(정부안)
직접투자	11,705	12,500	14,588	18,760	20,000

자료: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으로 재추정(기준점 2009년)

<그림 11>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2) 충남의 외자유치 전망

- 15)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외 경기와 상당관계가 있고, 주변국의 투자유치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임

가. 산업단지현황

- '09년 2/4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77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일부 조성 중에 있음

<표 28> 전국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단위 : 개, 천㎡, %)

단지유형	단지수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36	250,491	228,111	226,020	2,091	99.1
일 반	341	237,318	119,619	114,878	4,741	96.0
도시첨단	6	376	67	67	-	100.0
농 공	391	48,724	43,091	42,383	708	98.4
계	774	536,909	390,888	383,348	7,540	98.1

주: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 외국인투자를 위한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9>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형) (단위 : 천㎡, %)

구분	단지명	산업시설구역				
		전체 면적	분양 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합 계	총6개	3,516	3,117	2,612	505	83.8
강 원	동해자유무역	135	-	-	-	-
	군산자유무역	1,082	1,082	583	499	53.9
전 북	익산자유무역	298	298	295	3	99.0
	대불자유무역	1,033	1,033	1,030	3	99.7
전 남	울촌자유무역	264	-	-	-	-
	마산자유무역	704	704	704	-	100.0

주: 자유무역지역 현황은 산업단지형에 한함(항만형, 공항형은 제외)

주: 분양(임대)대상은 산업용지 중 조성된 면적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표 30>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단위 : 천㎡, %)

구분	단지명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합 계	13개	7,871	7,201	6,410	791	89.0
부 산	지사외국인	298	298	293	5	98.3
대 구	달성외국인	104	104	25	79	24.0
광 주	평동외국인	959	959	933	26	97.3
경 기	문산첨단(당동지구)외국인	239	239	239	-	100.0
	장안첨단1외국인	443	443	443	-	100.0
	장안첨단2외국인	380	164	164	-	100.0
충 북	오송외국인	302	-	-	-	-
	오창외국인	806	806	674	132	83.6
충 남	인주외국인	160	160	127	33	79.4
	천안외국인	491	491	491	-	100.0
전 남	대불외국인	1,614	1,614	1,602	12	99.3
경 북	구미외국인	1,579	1,427	1,127	300	79.0
경 남	사천외국인	496	496	292	204	58.9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 농공단지를 제외한 충남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비율은 11.0%로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편

<표 31> 지역별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09년 2사분기기준)

	단지수	비율
전국	383	100
서울	3	0.8
부산	15	3.9
인천	9	2.3
대구	11	2.9
광주	7	1.8
대전	3	0.8
울산	11	2.9
경기	95	24.8
강원	18	4.7
충북	39	10.2
충남	42	11.0
전북	21	5.5
전남	29	7.6
경북	41	10.7
경남	42	11.0
제주	1	0.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 아울러 충남은 외국투자 기업인들의 선호에 맞춘 외투자지역 지정 추진 계획의 수정 보완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투자유치기반 마련

<표 32> 충남 외국인 투자지역확보 추진계획 (단위 : 천㎡(천평), 억원)

단 지 명	면 적	소요 예산	입주 시기	주요 유치업종
계	751(227)	1,956		
아산 테크노밸리	70(21)	152	2009	디스플레이
천안 3산업단지	155(47)	704	2009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신재생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493(149)	1,000	2011	전자 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충남테크노파크	33(10)	100	2009	R&D 및 제조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나. 충남의 외자유치 전망

◆ 세계투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충남이 외국인투자지역 확충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2010년 15억불 유치 가능

-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추세를 통한 예측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3년간(2006~2008)의 투자유치 비중의 평균을 통해 충남의 유치 가능액을 추정하고자 함¹⁶⁾

<표 33>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 (단위 : 백만불)

	2006	2007	2008	2009. 10현재
직접투자	1,372	299	1,921	1,541

자료: 충남 내부자료

- 충남은 '06년~'08년도 평균 전국대비 10.5%의 투자유치실적을 올렸으며 향후에도 이 정도의 투자유치실적을 가정한다면 '10년 15억불, '11년 20억불, '12년 21억불 달성이 가능

<표 34> 충남외국인직접 투자유치 목표 (단위:백만불)

	2009(예측)	2010(예측)	2011(예측)	2012(정부안)
직접투자	1,313	1,532	1,970	2,100

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목표 대비 10.5% 수준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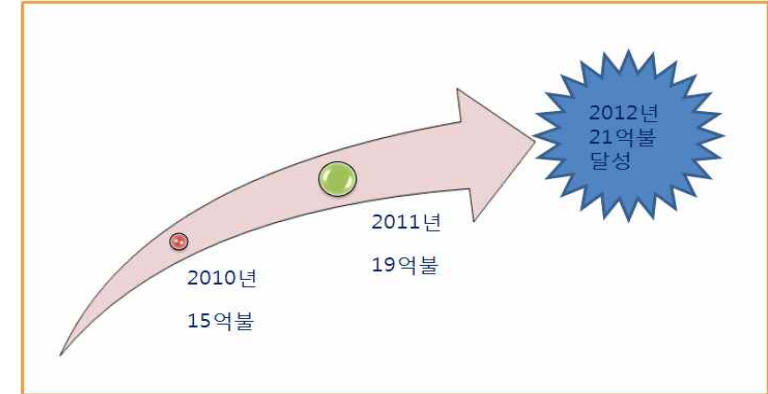
- 2009년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충남도의 적극적 유치노력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09년 10월 현재

16) 투자유치액을 결정하는 변수는 다양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연구주제로 남김

15.4억불을 유치하여 이미 2009년 목표치인 13억불을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15억불까지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

<그림 12> 충남의 외자유치 전망

(단위: 백만불)



- 아울러 세계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11년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UNCTAD가 밝힌 만큼 2012년 21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유치지역 순위에서 배제되고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뽑힌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도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필요한 만큼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 UNCTAD는 241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인 '2009~2011년 세계 투자 전망'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감소세를 이어온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0년부터 차츰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2011년엔 완전한 증가세를 되찾아 규모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이번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뽑은 '가장 매력적인 외국인직접 투자 대상 국가 베스트 15'에선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미국과 인도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브라질과 러시아 순
- 서유럽 국가 중에선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순위에 올랐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순위에 포함

○ 우리나라는 이번 순위에서도 제외되었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인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15억불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글로벌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중국, 인도 등 경쟁국의 적극적 투자유치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투자기반과 다양한 유치전략의 구상,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이 사후관리 및 차별화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고 외국 소유지분에 대한 적대적 정서와 낮은 기업 투명성, 호전적인 노동 조합 등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충남이 '12년 외자유치 21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 전략산업 및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함

○ 전산업 영역에서 녹색성장,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중점유치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되는 유치전략을 수립

※ 해외 주요국은 산업고도화·지역개발·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연계된 FDI 유치로 전환

- * 스위스는 바이오산업, 대만은 지식기반R&D센터, 영국은 창조산업(영화, 미디어 등), 에너지, 금융서비스, ICT, 생명공학 등 5개 분야의 중점유치 전략 추진

○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전략 필요

-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4대 도 핵심 산업과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축으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관광·레저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유치에 노력해야함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제조분야 외국인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향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관심 필요

-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의 72%에 달해 앞으로 서비스업 유치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5> 우리나라 산업별 외국인 투자 비중 (단위: 백만불)

구 분	2008	
	금액	비중(%)
농·축·수산·광업	1	0.0
제 조 업	3,002	25.6
서비스업	8,387	71.7
전기가스수도·건설	316	2.7
합 계	11,705	100

자료: 2009 외국인 투자동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편집

4. 기업유치

◆ 민선 4기 목표(기업유치 1,000개)의 273%를 이미 달성한 만큼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전환

○ 국내기업유치는 국내의 경기상황도 중요하지만 충남도 차원에서의

유치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국내기업유치는 국내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성장 및 기업의 설비투자와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 3.9% 성장이 예상되고
- 2009년 설비투자는 경기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인해 2008년 대비 12.3% 감소할 전망이나 201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8.2% 증가할 전망
- 따라서 2010년 충남의 국내기업유치환경은 2009년에 비해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여겨지나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하고 있음

<표 36> 충남의 국내기업 유치현황 (단위 : 개소수/명/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말
업 체 수	307	1,004	855	567
고용인원	45,361	196,580	46,220	11,372
투 자 액	60,001	193,010	147,132	10,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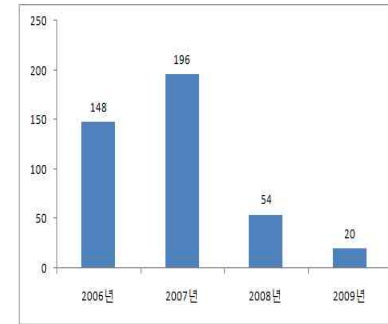
- 충남은 2009년 9월말 현재 567개 기업을 유치하여 2009년 500개 유치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 누적 2,733개 기업을 유치하여 민선 4기 목표(1,000개)의 273%를 달성
 - ※ 매출효과 41조 228억원으로 매년 4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과 투자액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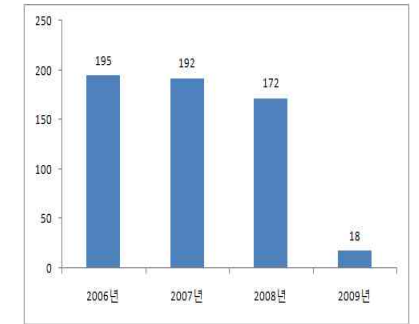
<표 37> 충남의 업체당 고용인원 및 투자액 (단위 : 명/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업체당 고용인원	148	196	54	20
업체당 투자액	195	192	172	18

<그림 13> 업체당 고용인원 (단위: 명)



<그림 14> 업체당 투자액 (단위: 억)



- 2006년 업체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148명, 195억이었으나 2009년 업체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20명, 18억으로 유치기업의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기업 500개라는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유치기업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충남도는 2010년 기업유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기업이전은 산업의 연관관계가 주요 고려대상이며 따라서 지역의 관련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
 -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유치 전략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입지조건을 특화시키는 정책 추진 필요

- 충남의 기업유치 전망을 살펴보려면 충남의 산업단지현황과 지역별 기업유치 현황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V. 결론 및 요약

◆ 충남의 수출

- 2010년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로 충남은 수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우리나라 수출은 12.2%~15.0%의 두 자릿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2008년 충남의 수출액을 기준으로 충남의 수출 전망을 예측해보면 2010년 406억불 ~ 421억불 달성이 예상
 - 충남의 수출 1위와 2위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이며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충남수출에 있어 호조
 - 충남의 주요수출국은 중국, 홍콩, 미국, 멕시코, 일본 순이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6%로 매우 높아 중국의 경제회복이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충남은 2000년~200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2%를 유지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경제성장을 둔화와 세계시장에서 신흥개도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기준성장하(6% 성장)에서 충남은 2015년경 560억불, 2020년경 750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7% 성장)에서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930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충남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전자 등은 세계시장에서 기술, 가격, 브랜드 인지도 면에 있어 당분간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충남의 수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

- 충남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은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전망
 - 다만 대기업 수출비중 높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충남의 농식품 수출

- 정부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식품 산업발전의 성장동력을 제시
 - 농림식품부는 매년 23%의 수출증가를 통해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수립
- 충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됨
 - 따라서 2009년부터 매년 23% 수출이 증가(충남의 2004~2008년 연평균 농식품 수출 증가율은 32.2%)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에는 4.9억불의 수출 달성이 가능하며 2012년 7.4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충남의 1,2위 수출품목인 인삼과 배가 정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집중육성 품목이며 충남의 농식품 1위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도 2010년 5억불 달성에 호조
- 2012년까지 23% 성장 후 10%대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정부목표인 2012년 100억불, 2020년 2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23%, 2020년까지 매년 10%정도 수출이 증가해야 하며 충남 또한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이 가

능할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총남이 2010년 5억불, 2020년 1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100억불달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총남도의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 필요

◆ 총남의 외자유치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예상치는 1조 20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10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16.7%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09년 목표인 125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총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 추세를 통해 예측해보면 2010년 15억불, 2012년에는 21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총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남도의 적극적 유치노력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09년 9월 현재 15.4억불을 유치하여 이미 2009년 목표치인 13억불을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총남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15억불까지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
- 아울러 세계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11년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밝힌 만큼 2012년 21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총남이 '12년 외자유치 21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산업

및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함

-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
 - UNCTAD가 241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매력적 투자유치지역 순위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남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와의 치열한 유치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 총남의 기업유치

- 총남은 2009년 9월말 현재 민선4기 목표의 273%를 달성하였으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과 투자액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 2006년 유치기업 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148명, 195억이었으나 2009년 유치기업 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20명, 18억으로 유치기업의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음
 - 따라서 유치기업의 수보다 먼저 유치기업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
 - 총남도는 2010년 기업유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 기업이전은 산업의 연관관계가 주요 고려대상이며 따라서 지역의 관련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유치 전략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입지조건을 특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총남이 추진하는 목표치는 예측 가능한 국내외 여건 하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예기치 않은 충격이나 정부의 정책변화 및 총남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자료>

김흥종 외,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성태규 외,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2006)

조영수 외,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최용재 외,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 산업연구원(2008)

황인성,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2009)

“08년 농식품 수출 17.2% 증가한 44억 달러”(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9)

“2009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KOTRA(2009)

“2009년 외국인투자유치 환경분석 및 전망”, KOTRA(2008)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2009)

“2011년까지 세계 외국인투자 전망 및 시사점”, 주영국대사관(2007)

“녹색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중점유치대상 선정 추진”(보도자료), 지식경제부(2009)

“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육성”(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8)

“농업전망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보도자료), 지식경제부(2009)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강국 실현 전략”(무역투자진흥회의자료), 지식경제부 외(2008)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농림수산식품부(2008)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과제”(보도자료), 한국은행(2008)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시행”(보도자료), 지식경제부(2009)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이제는 바뀌어야”(보도자료), 지식경제부(2009)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강화”(보도자료), 지식경제부(2009)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주요 경제통상 통계”, 외교통상부(2009)

“충남 2020 비전과 전략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2009)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산업연구원(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UNCTAD(2009)

충남도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

1. 서론

1) 연구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투자 부진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임(이규복, 2007).
-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효과 등 국내의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Wang & Blomstrom, 1992; Borensztein, Gregorio & Lee, 1995; 이규복, 2007; 박순찬, 2009; 박성재·이규용, 2009).
- 따라서,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수지, 선진기술이나 경영노하우 습득,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충남도의 경우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건인 및 해외 신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충남기업의 발전을 위한 촉진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외자도입정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정책사업임.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연구의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실태를 분석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충남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제시함.
-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충남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수출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국제수지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지역 내 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등의 전수 및 파급을 통한 경영관리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유도하며 나아가서는 도내 인력창출 및 경제규모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구함

□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1.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등을 기술하고,
 -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 “3. 충남 투자유치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 “4. 충남지역 투자유치의 전략 및 정책시사점”에서는 충남의 외국인 투자의 문제점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외국인 투자정책 중심 -

1) 이론적 고찰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의의

- 우리나라의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기술이전, 설비확충 등을 이루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생산증대 등 국가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 고용창출,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중점 유치,
 - 주변 경쟁국보다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환경 조성을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설정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개관

<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추진경과

구분	내용
국내산업 육성을 우선시한 제한적인 FDI 도입 ('60~'79)	- '외자도입촉진법' 등 제정 ('60년) - '외자도입촉진법' 등 관련법 정비 ('66년)
개방경제로의 이행과 외국인 투자기반 조성 ('80~'97)	- 외국인 투자가능업종 관련 Negative 방식 채택 - UR 및 WTO 출범 등으로 경제개방의 가속화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97년)
외환위기 극복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98~'02)	- 강력한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및 적대적 M&A 허용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98년)

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참조.

○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¹⁷⁾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접 투

17) 외국인직접투자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받는 것
- 단, 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

자, 즉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¹⁸⁾를 포함함.

<표> 최근 FDI 유치관련 주요 추진정책

구분	내용
FDI 유치기능의 강화	- FDI 유치조직의 기능 확충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적극적인 FDI 유치 활동 및 대국민 홍보	- 국내·외 투자설명회(IR) 개최 - 해외언론매체를 활용한 투자환경 홍보 - 외국인 투자자 격려 및 외국인 친화적 분위기 조성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 -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지속 추진 - 투자환경 개선의 결과, 경영·생활환경에 대한 평가는 점진적으로 제고
FDI 유치기반 조성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FTA 및 BIT 추진 - 획기적인 외국인 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FEZ)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로 구분
 -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 없이 배당금, 이자 및 자본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 반면, 직접투자는 단순자본참여를 넘어 기술, 상표권, 경영, 특허 등을 가지고 경영에 직접참여, 이윤을 추구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변천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1960년에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제한적으로나마 투자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외자도입기에서 초기산업정책기로 발전

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

18) 포트폴리오 투자 : 외국인이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채권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자와는 구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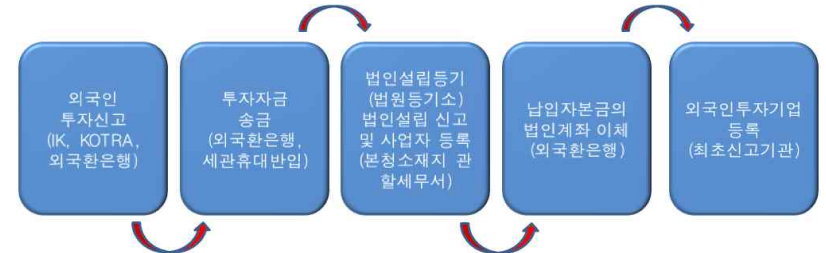
- 그러나, 1990년대 말 발생한 IMF외환위기는 산업 육성전략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정책으로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IMF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전환이 불가피 하였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마케팅 전략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점은 2003년이며, 이때부터 우수한 기술과 경영관리능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적 외자유치계획이 마련됨.



[그림]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천단계

□ 외국인 투자의 절차

- 외국인 투자 절차는 크게 외국인 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함.
 -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자료: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참조

[그림] 외국인 투자의 절차

□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제적 효과

- 고용창출 및 재정수입의 증대
 - 외국인 투자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인력채용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과 함께 원부자재 공급, 유통 등의 협력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기업의 고용유발
 - 외국인의 투자는 고용유발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원의 확대와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
 - 신규인력고용에 따른 개인소득세 증대, 법인세 증대 등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자본의 확보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외국자본의 안정적 유입이 가능
 - 또한, 경영권확보를 통한 장기적 사업이익획득이 목표이므로 투자기간, 투자회수 측면에서 안정적인.
- 기술이전 및 현지기업의 경쟁력 향상
 - 외국인 투자는 투자유치국으로부터, 기술지도, 고용인력의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선진화된 기술의 습득기회를 제공함.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품, 중간재의 공급을 통한 품질향상

및 납품신뢰성 확보

- 다양한 사업교류를 통한 투자확대, 생산성 증대, 기술혁신 등을 도모

○ 수출증대 및 시장구조의 경쟁력 향상

- 시장수요 및 사업기술 수준이 낙후된 개도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등을 통해 외국인 기업을 유치, 입주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수주 활성화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은 현지기업 독점 분야의 독점적인 구조를 경쟁적구조로 만들어 시장의 효율성 증대

□ 외국인 투자결정요인

-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시장개척 및 확대(판로 측면), 자원지향, 생산효율지향(해외 생산),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 등으로 구분됨.

-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인은 현지국가의 생산비용 및 시장수요/구매력상황, 교육수준/종업원 학습능력, 기술력 등 경제사회적 및 기술적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또한, 투자동기에 따라 개별투자결정요인에 대한 평가비중을 달리하고 있음.

- 자원추구형 투자의 경우, 다국적기업은 투자현지국가의 자원활용의 용이성 및 자원의 매장량규모(수요대비 적정 및 충분하지 여부), 수요의 경제성을 고려한 자원의 질적 수준을 우선순위로 고려
- 생산효율지향형 투자의 경우, 저렴하고 우수한 풍부한 노동력과 노동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시장추구형 투자의 경우, 생산제품에 대한 잠재소비시장규모와

향후시장성장성과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매출의 양 등을 비중 있게 고려

<표> 외국인 투자 결정 요인

구분	결정요인	개선소요기간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수요 ▪ 생산효율성 ▪ 자원의 가용성 ▪ 전략적 자산습득 	단기적 개선 불가능
사회정치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치적 안정 ▪ 노사안정 ▪ 민영화정책 ▪ 법률체계 ▪ 국제협약 	
사업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촉진활동 ▪ 생활편의환경 ▪ 기업경영환경 ▪ 사후투자관리 서비스 	단기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

주) 임성훈, 『동북아시아 전략적 외국인 투자마케팅』, 2004. 학현사. 수정후 재인용.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의 수단

- 외국인 투자마케팅의 수단은 크게 투자규제수단과 투자촉진수단으로 나누어 짐.

- 외국인 투자 규제수단은 투자물에 대한 소유권과 자국의 기간산업 및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투자대상의 규제가 있음.

- 외국인 투자 촉진 수단은 각종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과 같은 투자 인세티브, 외국인의 국내 생활을 위한 사업편의시설,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 절차 및 정보제공 등과 같은 지원활동, 투자관련기관의 투자자문, 애로사항 파악 및 문제해결 등과 같은 사후관리제도와 투자 유인활동 등이 있음.

- 최근 국내외 추세는 외국인 투자 촉진 수단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규제보다는 촉진을 통한 투자유치의 동기부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표> 외국인 투자마케팅의 수단

구분	내용
촉진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인센티브제도 • 외국인 생활편의사업 • 투자유치기관 지원활동 • 투자자문 • 사후관리제도 • 투자유인활동
규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지분 및 진입(투자대상) 규제 • 노사규제 • 경영활동 규제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사업

- 현재 KOTRA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처리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각종 인.허가 취득과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처리 또는 상담지원하는 서비스
- 사업실적

<표> 투자유치 행정지원 사업실적

투자유치 행정지원	3개년도 실적추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지원 건수	행정지원 건수	행정지원 건수

가. 외국인 투자신고등록	371	399	328
나. 직접처리민원			
- 현물출자완료확인	8	8	4
- 사업자등록신청	12	10	6
- 체류자격부여	-	1	17
- 체류기간 연장허가	802	965	1,400
- 재입국허가	728	1,246	2,042
- 체류자격 변경허가	116	481	724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144	144	108
- 외국인등록(재교부)	25	568	927
- 체류지변경신고	2	73	244
- 근무처변경, 추가	1	15	157
- 자격외활동허가	-	-	-
다. 일괄처리민원	-	-	-
라. 법인설립동기지원	21	13	4
계	2,230	3,923	5,961

자료: 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 참조

2) 외국인 투자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오수균(2003)의 연구

- 오수균(2003)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국내·외기업 모두가 공정한 경쟁법칙에 의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도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각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어느 한 측면의 지원보다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한 국가 경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최백렬(2004)의 연구

- 최백렬(2004)의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 고정자산투자,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당해연도의 외국인 투자자본에 비해 전연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GDP규모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수출 및 전기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양(+)¹의 영향을 미치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국내투자의 증가, 수출 증가 및 개방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국내투자 및 수출 등의 증대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간접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

□ 이규복(2007)의 연구

- 이규복(2007)은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투자 부진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아직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준이며,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수지, 선진기술이나 경영노하우 습득 등을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부

품, 소재, 서비스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보다 연구 및 생산 등에 관한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아울러 신개발기술이 시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평가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여택동·이민환(2009)의 연구

- 여택동·이민환(2009)은 한국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함.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진국으로 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 한국의 실질소득, 경제자유화, 인적자본은 양(+)²의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임금 과 한국기업의 집적도는 음(-)³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임금은 음(-)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소득 및 경제자유화는 양(+)⁵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과 서비스업 모두 전년도까지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집적도가 외국인직접투자(FDI)입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도권 더미변수의 경우, 양(+)⁶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투자결정시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성재·이규용(2009)의 연구

- 박성재·이규용(2009)은 외국인 투자기업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고용변동 및 고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양적, 질적 측면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도별 총고용량 증감률은 전체사 업체의 고용증감률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 보다 높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낮으며, 전문대졸이상 고학력, 고기능인력의 비중이 높 고, 장기근속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박순찬(2009)의 연구

- 박순찬(2009)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약 18년 동안 16개 제 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패널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제조업의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
 -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 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

□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정책적 소결

- 이상의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효과 등 국내의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외국인 투자유치는 직·간접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우수한 선진기술이나 경영노하우 습득 등을 통한 국내기 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 기반이 되는 외국 인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충남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현황과 문제

1) 충남의 투자유치 실태 분석

□ 일반현황

- 다음의 <표>는 충남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투자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음.
- 2008년 1월 기준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있는 기업이 총 200개 기업이며, 천안이 97건(48.5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산이 44건(22.00%)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투자건수를 살펴보면, 충남내 15개 지역 중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즉, 현재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분포는 충남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심한 편임.
- 따라서, 충남지역의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투자유치실적이 미미한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 및 동기부여적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충남지역 외국인 투자유치현황(2008년 1월 기준)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200	97	7	6	44	6	7	2	9	1	1	1	3	4	1	11
비율 (%)	48.50	3.50	3.00	22.00	3.00	3.50	1.00	4.50	0.50	0.50	0.50	1.50	2.00	0.50	5.50

- 다음의 <표>는 충남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투자현황을 업종별로 나타내고 있음.

-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현재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있는 기업 중 전기·전자·가스제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72건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그 뒤로 기계장비 제조업이 43건으로 나타남.
- 현재,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은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임.
 - 지역전략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연계는 정책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통한 선진기술 및 노하우(Knowhow),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이외에 첨단문화사업과 농·축산 바이오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표> 충남지역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현황(2008년 1월 기준)

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가스제조업	석유 화학	기계장비 제조업	서비스	비금속 광물 제조업	의약 제조업	식품 제조업	기타
200	38	72	4	43	10	8	2	5	18
비율 (%)	19.00	36.00	2.00	21.50	5.00	4.00	1.00	2.50	9.00

□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표> 충남의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지방세감면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100% 면제
입지지원	▪ 전용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전용단지내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이면서 첨단업종·고도기술 업종, 기타제조업 - 임 대 료 : 106원 / 월 / m² (임대기간 50년, 10년마다 갱신)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서 1백만달러 이상 - 75% 감면 : 5백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 산업단지개발시행자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임대료 지원 															
입지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범위 : 정상 분양가와 계약상의 분양가 차액,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고용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 조건 : 고용 시 ▪ 지원범위 : 20인초과 고용 1인당 월 10만원에서 ▪ 지원범위 : 100만원까지 지원. 단 기업당 3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 조건 : 고용 시 ▪ 지원범위 : 1인당 월 10만원에서100만원까지 6개월 ▪ 지원범위 : 간 지원. 단, 기업당 3억원 이내 															
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법제14조의2의 제1항 규정 충족 ▪ 용 도 : 토지매입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건축비, 자재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 ▪ 용 도 :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지원범위 :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유공자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도와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 ▪ 지급규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치금액</th> <th>지급기준</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5백만 ~ \$ 1천만 미만</td> <td>유치금액×0.0006</td> <td>\$6천미만</td> </tr> <tr> <td>\$ 1천만 ~ \$ 5천만 미만</td> <td>\$6,000 + \$1천만 초과분의 0.05 퍼센트</td> <td>\$25,500미만</td> </tr> <tr> <td>\$ 5천만 ~ \$ 1억미만</td> <td>\$25,500 + \$5천만 초과분의 0.04 퍼센트</td> <td>\$45,500미만</td> </tr> <tr> <td>\$1억 이상</td> <td>\$45,500 + \$1억 초과분의 0.03 퍼센트</td> <td>\$170,940미만</td> </tr> </tbody> </table> <p>* 공무원의 경우 평가된 성과금의 1/5로 함</p>	유치금액	지급기준	지급액	\$ 5백만 ~ \$ 1천만 미만	유치금액×0.0006	\$6천미만	\$ 1천만 ~ \$ 5천만 미만	\$6,000 + \$1천만 초과분의 0.05 퍼센트	\$25,500미만	\$ 5천만 ~ \$ 1억미만	\$25,500 + \$5천만 초과분의 0.04 퍼센트	\$45,500미만	\$1억 이상	\$45,500 + \$1억 초과분의 0.03 퍼센트	\$170,940미만
유치금액	지급기준	지급액														
\$ 5백만 ~ \$ 1천만 미만	유치금액×0.0006	\$6천미만														
\$ 1천만 ~ \$ 5천만 미만	\$6,000 + \$1천만 초과분의 0.05 퍼센트	\$25,500미만														
\$ 5천만 ~ \$ 1억미만	\$25,500 + \$5천만 초과분의 0.04 퍼센트	\$45,500미만														
\$1억 이상	\$45,500 + \$1억 초과분의 0.03 퍼센트	\$170,940미만														

자료: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참조

□ 충남 소재 상장기업의 외국인 투자현황 및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분석19)

19) 현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있는 기업 중 본사의 소재지가 충남지역인 기업은 총 74개 기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충남지역의 투자유치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8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음.

<표>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현황

(단위: 건수, 백만달러)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투자건수	7	12	21	26
투자유치금액	1,371	1,670	3,591	4,812

자료: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충남지역 투자홍보 브로셔 참조.

○ 그러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충남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음의 <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충남지역 소재 상장기업의 외국인 보유주식 수 및 주식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외국인 보유주식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2005년 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역시 2005년 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5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음.

○ 외국인 주식보유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0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분	기업 수	
KOSPI상장	대기업	8
	중소기업	12
KOSDAQ상장	대기업	6
	중소기업	48

- 즉, 현재의 충남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상장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외국인보유주식 수, 외국인주식보유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의 원인은 세계경기의 부진과 충남도 내 투자매력의 상실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는바, 특히 인력 공급측면과 지속 투자 동기 부여 정책 등에 관한 원인분석이 필요 함.

□ 충남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 다음의 <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충남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무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표> 충남지역 소재 상장기업의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천주, %)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외국인 보유주식 수	대기업	1,594.29	2,249.85	4,615.57	3,793.95	3,762.72	3,665.50
	중소기업	977.53	811.87	1,136.08	872.39	784.94	811.78
외국인 주식보유율	대기업	11.66	11.34	14.08	11.25	10.06	8.39
	중소기업	6.09	6.85	6.76	6.11	5.88	5.61

주) 외국인 보유주식 수 및 주식보유율 현황은 충남지역 소재 상장(KRX: 한국거래소)기업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 총자산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추세임.
 - 2007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 2008년의 경우,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바,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원인이 되고 있음.

<표> 충남지역 소재 상장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총자산	대기업	142,198	170,348	199,383	232,932	282,458	337,201
	중소기업	42,492	45,908	48,113	49,820	58,518	66,901
매출액	대기업	172,752	193,660	240,574	272,912	317,154	366,816
	중소기업	36,175	43,415	46,830	48,203	52,423	63,325
당기순이익(손실)	대기업	-2,691	21,325	9,947	9,685	12,313	8,306
	중소기업	1,200	101	-1,780	-1,581	-292	-4,018

주) 재무현황은 충남지역 소재 상장(KRX: 한국거래소)기업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 충남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SWOT분석

- 다음의 <표>는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SWOT분석을 나타내고 있음.

<표> 충남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SWOT분석

Strong(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위치 ▪ 완벽한 인프라 구축 ▪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 매력적인 투자기반(입지요건,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내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불균형 ▪ 지역전략사업과의 연계 미흡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내 지역의 분산성장 기회 ▪ 충남의 고용창출효과 ▪ 선진국의 경영기법 및 선진기술 도입 ▪ 지역의 경제성장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감소 ▪ 국내·외 경제악화로 인한 실업자 수²⁰⁾의 증가

- 구체적으로, 충남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강점요소로는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 등과같이 외국인을 위한 전용시설 및 저렴한 전력, 산업용수 제공 등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으며,
 -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이 가능함.
 - 또한, 총 9개지구(1,967천㎡)의 외국인 투자지역에 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가동 중이며, 향후 2011년까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조성계획
- 약점요소로는 충남내 지역간 투자유치의 격차가 심하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전략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회요소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와 선진국의 우수 경영기법 및 선진기술의 도입하여, 국내 업체 및 제품의 질적향상 및 충남지역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위협요소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기업 중 충남지역 소재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점차적인 감소와 국내·외 경제악화로 인한 2007년 이후 충남내 실업자 수의 증가

3) 충남의 투자유치의 문제점

□ 충남내 지역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의 불균형

20) 충남의 실업자 수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 현재
실업자수	23	24	28

- 2008년 기준 충남내 지역별 외국인 투자건수를 살펴보면, 충남내 15개 지역 중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즉, 현재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분포는 충남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심한 편임.
 - 이로 인한 지역내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주변 교통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천안, 아산, 당진의 경우 주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왕래가 가능함.
 - 따라서, 투자유치실적이 미미한 지역의 주변 교통환경의 개선 및 투자유치의 증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
 - 2008년 현재 외국인 보유주식수는 대기업을의 경우 2005년 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역시 2005년 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5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음.
 - 외국인 주식보유율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0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즉, 현재의 충남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상장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외국인보유주식 수, 외국인주식보유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지역전략 사업과의 연계 부족

- 현재,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은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임.
- 그러나,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이외에 첨단문화사업과 농·축산 바이오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표> 충남지역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비율

(단위: %)

구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가스 제조업	기 타
비율	19.00	36.00	9.00

- 따라서, 지역전략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간 연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4.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사례

1) 외자유치 성공사례

□ 자체 전략 투자성공형: 한국바스프 (BASF Company Ltd.)

- BASF Company Ltd.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독일화학 업체로서 현재 한국에서 여수, 울산, 군산, 안산 등 여섯 곳에 세계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음.
- BASF는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5억 유로를 투자 및 1,5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17억불의 매출액을 기록함.
- 한국바스프는 2004년에 전년보다 42%가 늘어난 총 17억1,2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BASF 그룹이 거둬들인 전체 매출의 27%에 해당하는 수치임.
 - 대체적으로 한국바스프는 총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며, BASF 그룹 중 한국 자회사가 최고의 성장률을 구현한 가장 성공적인 해외투자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 BASF의 과거 국내 대기업의 파트너로서 공동투자는 항상 성공적이었고 아시아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BASF 이사진은 한국 근로자의 헌신성과 교육 수준 그리고 근면성을 항상 높이 평가해 왔음.
 - BASF 본사는 제조부문과 사무 및 관리부문의 근로자를 통틀어 전반적인 한국 인력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으며, 1,500명 직원 중 본국인 독일에서 온 직원은 4명에 불과함.

□ 합자형태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형: 삼성테스코 (Tesco)

- 삼성물산은 1994년 3월 유통사업에 진출하였으나, 1997년에 금융위기로 인하여 2억불의 손실이 발생
 - 사업의 재조정이나 조직의 축소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실시되었으나 유통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그 결과 1999년에 삼성과 영국의 유통업체인 Tesco PLC간에 합병이 이루어졌음.
 - 영국의 Tesco는 2억2,000만불을 투자했고 삼성물산은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1998년에 해고한 1,137명의 직원을 모두 다시 고용
 - 이 같은 돌파 전략으로 삼성테스코는 시장 지배를 위해 1억 7,000만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며, 첨단 관리기법과 IT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임.
- 삼성테스코는 한국내에서 유통업체로는 가장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 5년 동안 2위의 대형 할인점 체인으로 부상함.
 - 현재는 하이퍼마켓 30곳과 슈퍼 익스프레스 스토어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Tesco 전세계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인수를 통한 외자유치형: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Odfjell)

-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는 Odfjell ASA가 대한유화공업(KPIC)의 지분 50%를 인수해 2002년 11월 15일 설립
- Odfjell은 KPIC를 인수함으로써 총 저장능력 10만 9,500입방미터의 탱크 39개와 16헥타르의 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포함, 울산의 온산 지역에 위치한 새 탱크 터미널을 취득
 - 터미널의 총자본은 310억원 (2,600만불) 이고 Odfjell은 1,250만불을 1단계로 투자

- Odfjell은 원래는 국내용이었던 울산 시설을 다용도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보고, 터미널의 일부는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 점점 더 전문화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수하였음.
 -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노력으로, 인체와 접촉시 독극물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인 페놀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국제 고객이 미국에서 온 화물을 나눠 일본행 컨테이너와 중국행 드럼에 환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드러밍 지역 등을 마련
- 메지봉스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이사가 울산항의 야간 입항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화학물질의 선박간 환적의 주야 서비스가 가능
 - 또한, 과거에는 2만 dwt 이상의 선박을 제한하던 크기 규제를 4 만 dwt 급 선박의 정박을 허용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짐.
- Odfjell 의 투자는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이나 물류단지 지역분부를 유치하고자 했던 정부 노력의 첫 결실에 속함.
 - 울산 해양수산청은 73억원(620만불)의 예산을 투자해 Odfjell이 요청한대로 야간 입출항시설을 건설기로 결정
 - 터미널이 개장되면 다우 케미컬이나 BP 등과 같은 주요 고객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2) 외자유치 성공사례의 정책적 시사

- 해외투자유치는 투자기업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므로 관련 유치에 대한 유형별 투자동기유발 대응정책 필요
- 자체전략에 따른 해외기업의 국내 진입은 관련 유치에 따른 일반적인 정책마련 필요

- 국내기업을 위한 지원형이나 국내 기업 인수 등 합자형태의 경우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동반적 입장에서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 마련 필요
- 국내 기업의 지원자로서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유치 성공가능성이 크고
- 협력 기업의 적극성과 양보성도 중요한 전략적 변수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기존 국내 기업의 해외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방안마련
- 국내 효성의 해외 파트너였던 독일 BASF가 좋은 예시
- 국내 사정에 밝아 해외투자유치의 성공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

5. 충남지역 투자유치전략 및 정책시사점

1)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위한 기본 컨셉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인으로서의 선도 기술형 사업 중심으로 유치
 - 기술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의 투자유치
 - 새로운 지식 및 기술관련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사업위주의 사업유치

○ 고부가 부품 소재의 수출과 수입사업

○ 국제수지(경상수지) 개선에 기여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사업 선호

○ 환경폐해 및 에너지(예: 탄소배출이 높은 생산공정)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외

○ 국내 환경 및 에너지절약 및 재생관련 기술 파급의 효과가 큰 사업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또는 사회후생차원의 사업에 대한 관심 중점

○ 서비스R&D, 최신 금융공법에 기반한 금융사업, 물류사업 기타 인터넷관련 사업 등

○ 관광리조트, 노인복지, 건강체육 및 놀이테마공원 그리고 가종 가스, 전기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사업

2) 외국인 투자 유인전략과 실천매뉴얼

외국인 투자전제: 투자 유인 규제 및 동기부여방안 마련

○ 투자유인을 위한 외국기업의 의향파악 및 관련규제의 조정 및 철폐 그리고 동기부여방안이 마련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 투자유인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투자유인 규제 및 동기부여방안을 연구용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전략방안 마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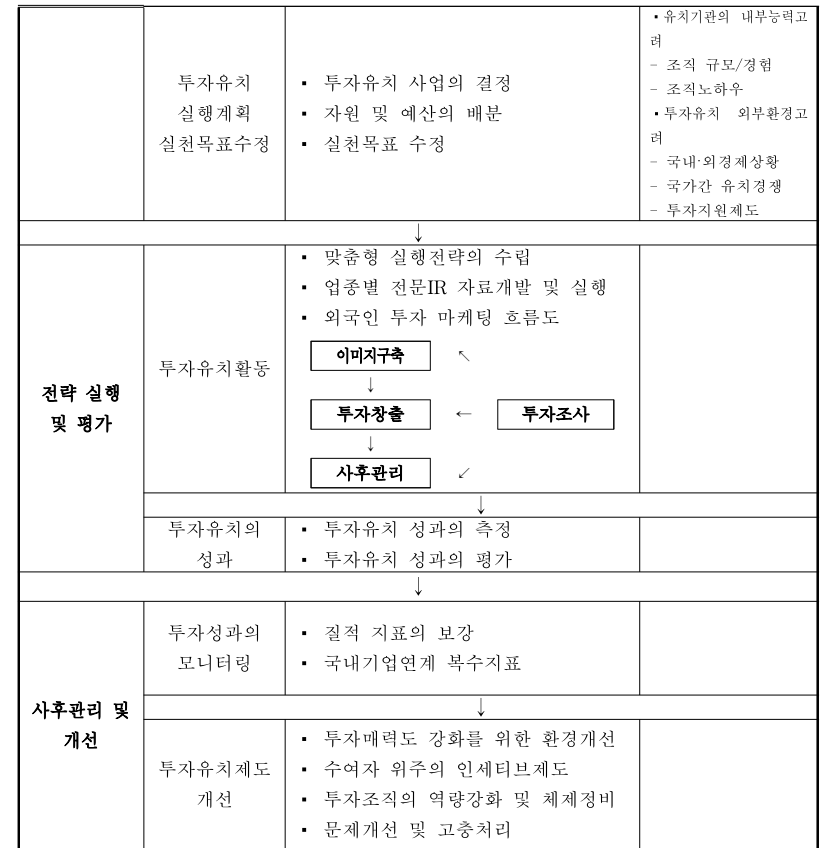
- 잠재적 외국 투자기업을 선정하여 이들의 의견을 심층면접하는 등 실증조사가 필요

□ 투자 유인 추진전략체계의 정립과 실천

-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 추진전략의 수립단계, 전략의 실행 단계, 실행성과의 평가단계를 거쳐 진행
- 외국인 투자전략 역시 기업의 일반적인 전략 추진단계와 유사하게 전략수립과정, 전략의 실행 및 평가과정, 사후관리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함.
- 사후관리과정은 투자기업의 소문에 의한 후속투자의 중요한 투자유치의 관건이 되므로 기존 외국투자유치기업의 애로파악과 이들의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등도 고려
- 다음의 <표> 및 [그림]은 외국인 투자의 추진단계별 프로세스 및 추진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표> 외국인 투자 추진단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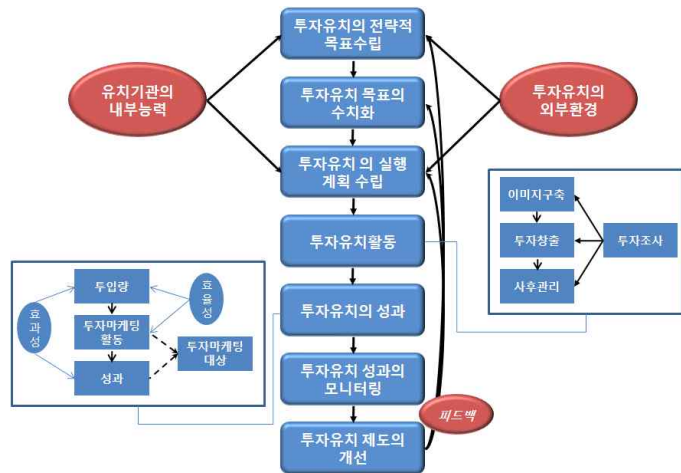
구분	추진내용	비고
전략 및 계획의 수립	투자유치의 비전(미션) 및 전략적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시대 실현 • 전략산업의 육성 • 국가의 경쟁력 확보 • 경제 확산효과 실현
	투자유치 목표의 수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와 성과의 비교를 위한 수치화 • 양적 목표 및 질적 목표 모두 가능 • 유치의도를 수치화한목표이나 정확한 수치는 상세한 전술과 조직화계획이후가능)



[그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

- 외국인 투자 유인 추진전략체계는 세부적인 상세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리스크사전 차단

- 이는 해외투자 유치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동시에 외국인 투



자자와의 유치갈등을 사전 예방

- 사전 규제 및 동기부여 건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

- 주요 매뉴얼은 추진 프로세스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추진 인력과 필요자원 등 조직화 요인들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기본 매뉴얼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해외투자의 유형에 따라 산업에 따라 구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외국인 투자 유인 추진마케팅 방안

- 텔레- 또는 메일링마케팅
 - 표준 메일링 (인사, 투자유치 제목, 유도 내용, 기회 및 예상이익 예시 동기부여방안/ 으로 압축)
 - 정기적으로 발송

- 투자설명회
 - 해당국 주요 명망인사에 의한 제안 설명으로 신뢰감 증대
 - 구체적 투자인센티브 및 예상이익을 설명함으로써 동기부여

- 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인 잠재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화방안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

- 외국어에 능통하고 관련 유치업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팀장으로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해외업무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도내 및 외부에서 영입하여 구성

- 지역별 전담제를 추진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세워 성과극대화 방안 마련

□ 외부 도움 연계조직의 이용도 제고

- 도움을 줄 수 외부 투자 유치 조직을 최대한으로 활용

○ 예시:

- 공적 국내외 기관: kotra, 개별 국가 국내외 상공회의소 등
- 해외 국가별 관련 산업협회

- 외국인 유치 전문 컨설팅업체에 일정 성공보수제를 활용하여 유치유도

- 예시: 해외전문 투자전문기관: 스팍스(SPARX)그룹

- 외국인 유치 전문 컨설팅업체로서 투자국내 현지 사업자로 해외 투자 기술거래 사업을 영위한 경우나 국내 사업자로써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지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기관 등 협력파트너와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 협력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들을 발굴하여 협력자로 활용

- 국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 네트워크 구축 보유하고 있는 기관
- 해외 현지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 회계, 투자 자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실적보유기관

○ 해외투자유치 광고 및 홍보를 전담할 글로벌 전문 광고대행조직의 활용

- 다양한 해외 프로모션 채널을 발굴하고 해외 홍보 노하우를 전수받음.
- 국내사: 글로벌컴, 아리랑 TV 등 다수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기관의 활용

○ 신용평가관리

- IMF외환위기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용평가 회사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신용평가관리기관으로는 S&P(Standard&Poors)사와 Moodys사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투자기업의 경영실적 및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함.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월드뱅크 산하기구로서 1958년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직접 투자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증
-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시 존재하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유치국에서는 투자유치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양자간 투자촉진 서비스 제공

○ 해외투자자문기구(FIAS: 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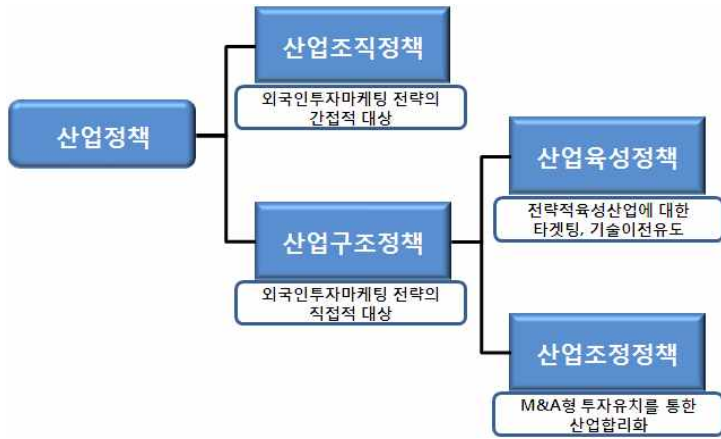
- 해외투자자문기구(FIAS) 역시 월드뱅크산하기구로서 해외직접투자 촉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구임.
- 해외투자자문기구(FIAS)는 투자유치국의 투자소유지분을 제한 및 투자업종 제한규정, 과실송금 문제 등 규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마련,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 연결 등 투자 촉진활동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4) 충남 지역 특화 산업정책과 연계 전략

□ 지역특화전략의 경우 정부의 자금 판로지원 등 관련 특혜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인정책 홍보 필요

○ 외국인 투자 마케팅 전략은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육성정책과 산업합리화 과정으로써 산업조정정책을 수용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이며,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 산업 육성 정책임.

- 우리나라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정책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음.



[그림] 산업정책과 외국인 투자 마케팅

-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은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장기적 기획 하에 국내 산업육성에 주안점을 두어 투자 인센티브(자금지원/ 세제혜택/ 단지내 저렴한 공장부지 임대 등)의 홍보강화

□ 전략사업의 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용방안

- 클러스트는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군집기;업활동에 따른 상호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 되고 있음.
 -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음.
- 또한, 클러스트는 제품의 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을 위한

생산업체 그리고 지원기관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집 효과로 인하여 제품의 보완 및 신기술 융합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클러스터 형성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의 입지경쟁력을 구분하고, 전략수립의 기초로 활용
 - 둘째, 지역클러스터에 필요한 가치나 분야의 파악 및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기업의 유치와 연계개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셋째,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를 통하여 클러스터 목적의 궁극적인 실현
- 단, 본 사업은 단기간의 기대성과보다는 해당 신제품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광고에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지원예산 배분 등 상호 협력기획 하에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 내 낙후지역에 클러스터를 지정설립 함으로써 지역분산성장도모 및 균형발전 유도
- 선진국의 경우, 낙후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낙후된 지역의 분산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낙후지역을 보완 및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등과 같은 단기적 방법 보다는 지역특화사업 구축 및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부작용이 적으면서 견고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투자지속 및 확대 방안

- 국내 수입대체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 산업의 수명주기(LifeCycle)상 이미 성숙단계에 이른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함
 - 국내기업과 합병함으로써 해당유치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격경쟁력 유지
 - 국내 기술이 부족한 수입대체품목의 해외 제조사를 도내 유치함으로써 국내 소재산업의 기술파급효과의 증대 및 관련기업의 기술선진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유지
 - 기존 국내 수입업체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 유인정책 필요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재 및 부품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합작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한 투자확대 방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부품 등의 현지조달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모기업으로부터의 핵심부자재 조달의 국내기업으로의 전환유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유치국 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품 및 소재연계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활용화 추진
 - 국내 관련 부품소재기업과의 협력 및 합작유도
 - 국내 조달원천 전환을 위한 국내 협력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설자금 정부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6)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Research & Development Center)의 유치

-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시 국내 기술 파급효과의 증대 등 기대
 - 외국 기술 선도기업의 연구센터의 기능은 결국 산·산기술 협력을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동시에 현지의 기초연구기관이나 국내기업의 기술제공자로서의 기능.
 - 특히,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기관 유치된다면, 이같은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시 국내 고급 기술인력의 수준향상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 기술일자리 창출이 기대
 -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기관은 투자유치국 현지의 연구인력을 흡수하여 신규 고부가가치 지식일 자리를 창출
 - 국내 기술 파급효과의 증대 등이 기대됨으로써 국내 신(新) 전문인력 육성에도 촉진제 역할

7) 투자유치를 통한 품질개선 및 선진 경영관리의 파급 및 전수

- 국내 제품의 품질 수준 및 노동의 질향상에 기여
 - 다국적 기업은 투자유치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 개선 및 질적 향상의 유도
 - 즉, 다국적 기업의 종사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경영기법 및 기술 등 선진기술을 접하고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한 국내업체 생산제품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동시에 국내 기업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해 관리효율성제고와 인력의 능력개발에도 기여

○ 사고방지 및 작업자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작업안전관리 포함

□ 녹색성장추진을 위한 에너지관리 및 신소재 개발방안 도입추진

○ 에너지 효율성제고와 에너지절감방안의 교육 및 국내기업에 전파

○ 환경친화적 탄소배출 최저 관리 방안 등의 교육을 통한 전수 및 국내기업에 파급

○ 신재생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투자유치기업의 선진 연구개발 및 관리방안의 국내 기업에 모방 및 응용전수

□ 선진경영관리기법의 전수 및 학습을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활용방안

○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와 함께 병행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국내 기업의 경영관리를 포함한 생산 및 공정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해야 할 경영기법이나 노하우 등을 정확히 사전조사를 통한 파악이 중요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 작성하여, 국내기업의 문제점 파악 및 분석을 실시
 -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최적 공정, 유통/물류, 생산, 마케팅, 영업 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문제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대응전략과 대응전략의 도입필요성 여부를 체크

○ 또한 상호 전략적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 정보공유 및 교

육세미나를 통해 외국 선진 관리기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식경영을 유도·촉진함.

<표>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영관리도입체크리스트(Checklist) 예시

구분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문제점(예시)	대응전략	도입필요성 여부
연구개발	▪ 연구개발의 공정설계	▪	○ / ×
유통/물류	▪ 로직		
생산	▪ 환경친화적 공정 ▪ 에너지 절감 등		
마케팅/영업	▪ 사후관리 DB/CRM ²¹⁾		
자산운영	▪ 펀드 등 장기자산운영		
서비스	▪ 서비스 R&D		

8)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평가

□ 해외 투자유치의 활동평가를 통한 동기부여 및 개선

○ 기존 해외투자유치 마케팅 및 성과결과에 비용 및 수익(편익)에 대한 평가를 통한 투자관련 조직에 대한 보상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

○ 해외투자유치 조직과 공로자에 대한 포상실시로 동기부여마련

□ 해외 투자유치의 활동평가체계의 마련

○ 관련지표 마련(예시)

- 유치홍보 및 광고활동의 내용 및 인지도 상승, 관심도 증대 등의 효과

- 투입비용의 평가: 내부 홍보비, 출장비, 정보통신비, 투자유치회

21)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의비, 투자유치 관련 해외설명회, 투자유치 관련 연구용역비 등
- 투자유치성과: 투자신고 건수/금액, 투자실행건수.규모, 외국인 투자비중, 외국인투자 기술파급(기술특허),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 경영혁신파급효과(관리비용 감소/경영관리기법 활용건수), 수출/수입대체 규모 등

- 관련 성과평가기준 및 평가체계의 정립과 매년 성과평가 실시을 통한 문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9) 기타 투자유치방안

- 인프라건설을 위한 해외자본 투자유치

- 항만/도로/관광리조트 건설 등 국제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기업의 투자유치
- 전문가의 정확한 손익분석에 따른 정부의 이익보장 등 고려

- 국내 유망 발명제품에 대한 해외 투자자본 유치

- 국내 발명품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부가 발명제품의 경우,정부지원 하의 국제자본투자 유도
- 전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 경제성 분석과 그에 기반한 세계시○ 수요 조사에 따른 정당한 투자유인방안 등 고려

- 국내 해외투자유치 성공사례 개발 및 홍보

- 해외투자유치성공에 따른 성공사례의 영어판 및 영어사이트를 만들어 전문 홍보 및 광고대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흥미유발

- 업종별 국가별 사례 및 성공요인의 시사

- 정부의 투자유치 유인 및 성공과의 관계성 제시를 통한 투자 매력도 제시

<참고문헌>

- 김익성(2006). “해외유통망 및 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익성, 이현수(2006).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익성(2007).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익성(2009). “무역촉진단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박성재·이규용(2009).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분석”. 월간 노동리뷰 2009년 1월호.
- 박순찬(2009). “한국서비스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제조업 생산성”. 국제통상연구 제14권(제2호).
- 여택동·이민환(200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산업별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제4호).
- 오수균(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지보 제7권(제3호).
- 이규복(2007).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16권(제24호)
- 임성훈(2004). “동북아시아 전략적 외국인 투자마케팅”. 학현사.
- 최백렬(2004).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8권(제1호).
- Borensztein, Gregorio & Lee(1995).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5067.
- Wang, J. & Blomstrom, M.(1992).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 A Simple Model". European Economic Review 6.

충청남도 국제협력의 발전 방향

법무법인 정평: 오수용

I. 충청남도 국제협력 기본현황

1. 국제협력의 역사

- 1) 과거 - 총무과, 기획관실,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중심으로 국제교류업무가 분산 추진.

- 2) 1994년 국제통상전담부서인 국제통상협력실 신설한 이래 현재 투자통상실 산하의 국제협력과에서 총괄.

2. 국제협력과의 기본현황

1) 조직

- 4담당 - 국제기획담당, 국제교류담당, 중화권담당, 동아시아담당
- 3해외사무소 - 미국 LA통상사무소, 중국 상해무역관(쓰촨분소), 일본 구마모토연락관

2) 기능

국제교류 사업을 총괄, 조정, 수립, 시행, 관리, 지원하고 있음.

3. 자매·우호 협력체결 해외자치단체 현황

1) 자매결연 : 6개국 6건

(일본 구마모토현, 호주 남호주주, 중국 허베이성, 러시아 아무르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2) 우호협력 : 9개국 14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독일의 바이에른주, 일본의 나라현, 중국의 산둥성, 상하이시, 쓰촨성, 장쑤성,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주, 베트남의 룡안성, 캄보디아의 씨엠립주, 브라질의 상파울루,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주)

II.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

1.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업의 추세

- 1)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는 1960년대 광역 6건, 기초 4건, 합계 10건에 불과.
- 2) 현재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64개국 879개 도시 1043건.

2.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업의 증대 원인

1) 세계화 (Globalization)

○ 세계화 이전

- 18C 중엽 이전의 농업경제 사회 : 혈연과 지연에 의해 고립된 지역사회
-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사회 : 국가라는 틀

○ 세계화의 도래

- 19C 중엽을 전후해서 급격한 변화와 (국경이라는 전통적인 경계를 벗어난) 새로운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의 등장
- 1차 세계화는 1차 세계대전 (1914년)으로 붕괴. 이후 분열과 대립의 시대(2차대전과 냉전)
- 2차 세계화 : 1989년 11월 Berlin Wall의 붕괴가 그 신호탄

○ 한국의 세계화

- 1차 세계화에 대한 대응 : 쇄국과 신 사대주의(친러파, 친일파 등)
- 2차 세계화에 대한 대응 :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1990년대 초 금융시장 개방 (그 결과 국제자본의 급속도 유입 → 외채 규모 증대와 과잉 중복 투자 → 한보 철강을 필두로 하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 → 외채상환이 어려움에 봉착, 외환위기)

○ 지자체의 세계화

- 충청남도는 더 이상 '한국 내에서의 충남'이 아닌 '세계 속에서의 충남'
- 위상 변화는 충청남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

2) 지방화

-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중앙집권제 하에서 지방자치는 설 자리 없었음.
- 민선 1기가 시작된 1995년을 기점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폭증하게 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당연하고도 반가운 사실.

3.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

- 1) 충청남도는 왜 국제협력 사업을 하는가? 그 동기와 rationale 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과거에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외교를 보완내지 분담하기 위해서?
 - 지자체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과 협력을 위해서?
 - 투자유치와 통상지원을 위한 마중물로서?
 - 충청남도 공무원의 사업, 생활과 사교의 국제화를 위해서?
 - 충청남도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 참고로 중앙정부의 외교의 최근 흐름을 검토

- 외교는 상호의존의 시대임을 자각하여 자국의 이익추구에서 벗어나 국제협력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국제협력의 중심 과제는 “같이 잘 먹고 사이좋게 살기”
 - 화두는 MDGs의 달성 (별첨2 참조).
- 단 국제협력의 목적과 관련하여 자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이라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중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 대답이 존재.
 - 전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일본.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는 것.
 - 후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영국 등. 빈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

3)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기본이념 재정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

- Think Globally, Act Locally
 - Think Locally, Act Locally?
 - Think Locally, Act Globally?
- 호혜주의(reciprocity)의 그림자
 - 주고 받기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혹은 “Mutual backscratching”)에 대한 암울한 기억
 - “내 이익 먼저” 주의로부터 국제교류/국제협력?
 - 받기 전에 먼저 줄 것.
 -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것

III. 전략이 있는 국제 협력

1. 계획

- 1)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향후 발전 계획은 무엇인가?
- 2) 중기 정책 수립의 필요성
 - 단년사업, 이벤트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다년간 사업을 우선해야
 - 국제협력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해서는 중기정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과 기본 방침, 중점과제를 좀 더 구체화
 - 3~5년 단위
 - 국내외의 정세 변화 및 충청남도의 발전을 고려

- 시행상황을 중간평가한 후 개정

- 국제협력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해서는 또한 나라/지역 별, 분야별 협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중기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2. Priority

- 1) 교류대상 국가와 자치단체 선정의 절차와 기준

- 절차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1차 선정을 하고 사전교류와 의회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

- 기준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교류대상 국가와 자치단체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 지인관계를 통한 선정?
- 전세계 전자치 단체와 교류?
- 다양한 구성이 되도록 선정?

- 선택과 집중

- 한정된 재원의 문제
- 다국가 다지역 선정보다 중점국가 중점지역으로 선택

과 집중해야

-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 및 선진국 중심 교류

- 잇점 (1) : 선진 행정과 선진제도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잇점 (2) : 우수기술, 해외자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을 자극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
- 잇점 (3) : 지역 상품에 대한 구매력
- 잇점 (4) : 연수 견학 시찰 등을 통해 견문 확장.

- 잇점 (5) : 방문시의 숙박과 여행의 편리함

- 잇점 (6) : 만약 사무소를 연다면 파견 시 자녀 교육의 혜택?

- 최근 지자체의 교류 추세

- 브릭스 : 2001년 미국의 증권회사 골드먼삭스그룹 (보고서에서는 2003년)이 국토·인구 규모로 보아 대국이 며 근년에 눈부시게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브라질 (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브릭스라고 지칭.

- 친디아 :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5년 세계대전망”에서 브릭스 4개국 중 중국과 인도가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

- 넥스트 11 또는 넥스트 브릭스 : 2008년 도이치자산운용그룹에서 중국시장의 거품 우려되니 중국투자 완화 주장. 브릭스 넘어 넥스트 이머징 시장으로서 이집트, 인도네시아, 터키, 나이지리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란, 파키스탄, 베트남·카자흐스탄·멕시코 등 지목.

- BICIs : 2010년 이코노미스트지 예측. 브릭스 4개국 중 러시아 빠지고 인도네시아 추가.

- 교류 대상 국가 및 지역 선정 기준 재정립

- 행정 : 행정 제도 수입국 (선진국) 외에 행정 제도 수출국 (개도국)

- 서비스 : 서비스 수입국 (선진국) 외에 서비스 수출국 (개도국)

- 자원 : 자원 수입국 (자원부국) 중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 상품 : 상품 수입국과 수출국 그 각각 중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 자본 : 자본 수입국 (선진국) 외에 자본 수출국 (개도국)

- 기술 : 기술 수입국 (선진국) 외에 기술 수출국 (개도국)
- 노동력 등 : 노동력 수입국과 노동력 수출국
- 성장 잠재력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 문화 : 문화 수출국 외에 문화 수입국 혹은 상호 교류국
- 인도주의 등 :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긴급구호, 개발원조가 필요한 나라 특히 최빈국

2) 교류대상 중점 분야

○ 충청남도의 고유한 특색 분야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야,
- 지리적인 여건과 관련된 분야
- 기타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있는 분야

○ 지역이미지 상징으로 승화 가능한 분야

○ 보편화 가능한 분야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 공동관심사가 있는 분야

- 다문화 가정(베트남, 캄보디아),
- 환경(황사와 관련하여 몽골, 중국의 사막 지역)

○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 지역 경제에 연관 효과가 높은 분야
-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

○ 교류대상 국가의 needs가 있는 분야

- 사업자본(Business capital) : 농업, 공업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동력 운송수단
- 인적 자본(Human capital) : 사람의 건강 영양 기술 (사람들이 경제적 생산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
- 지식 자본(Knowledge capital) : 과학적 기술적 노하우 (물리적 자연적자본의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인프라(Infrastructure) : 도로 전력 물과 위생 공항과 해항 통신시스템 (사업의 생산성을 규정하는 필수 투입요소)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건전한 생태계와 토양, 경작 가능한 토지, 생물 다양성 (인간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
- 공공제도적 자본(Public institutional capital) : 상법 사법제도 정부서비스와 경찰 (분업이 평화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함 밑바탕)

3) [선정 사례 (추천대상)] 덴마크 재생 에너지섬 삼소도

○ 삼소도 기본 현황

- 덴마크 중앙에 위치한 인구 4,200명, 면적 114km²의 작은 섬.
- 66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섬인구의 20% 이상(덴마크 평균 13%)을 차지.
- 덴마크 평균 소득보다 20% 이상이 낮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
- 1999년 섬의 주요 산업중 하나이었던 돼지도살업의 폐쇄로 80여가구가 실직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노정

○ 1997년 덴마크 환경에너지부가 개최한 ‘재생에너지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삼소도 개발 프로젝트’가 우수작으로 채택되고, 삼소도가 재생 에너지섬으로 지정

- 10년간 삼소도 주민들의 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로 삼소도는 풍력·태양열·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섬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남아 본토에 수출하는 재생 에너지 자급도 실현
 - 10년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에너지 소비의 13%에 불과
 - 현재는 섬에너지 수요의 99.6%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삼소도 개발은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아니고, 저소득저학력고령의 농민들이 대부 분인 섬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Bottom-up)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추진.

- 수차례의 주민회의를 거쳐 대부분의 섬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

- 생에너지 시설들에 개인공동 소유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
 - 육상풍력발전터빈 11기 : 9기는 섬주민 개인 또는 공동 소유, 2기는 협동조합 소유
 - 해상풍력발전터빈 10기 : 5기는 삼소도 자치정부 소유, 3기는 주민 공동 소유, 2기는 협동조합 소유
 - 밀짚연소난방공장 3기 : 각각 섬주민 공동소유, 협동조합 소유, 개인회사 소유 형태
 - 태양열나무조각 연소난방공장 1기 등
- 10년간 약 4억 크로네(약 8백억원)가 투자되었으며 이중 정부 보조금은 7.5%인 3천만 크로네(약 6십억원)에 불과
- 삼소도를 “10년내 100% 재생에너지 자립의 섬, 100% 탄소 중립적인 섬”으로 만들겠다는 섬주민들의 비전 현실화
- 풍력발전 터빈 건설로 섬내 전력 수요 100%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섬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탄소 네거티브성 달성 (1997년 연간 탄소배출량이 6만5천톤에 달하였으나, 현재 마이너스 1만 5천톤의 탄소 네거티브성으로 탈바꿈)
 -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 연소공장 건설로 섬 난방의 70%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도 열펌프 등 새로운 난방시스템 도입
 - 유채(Canola)유를 이용하여 자동차경운기 등의 연료로 사용
- 삼소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섬주민들의 투자 소득 증 대, 섬내 고용창출, 관광수입 증대 등 효과 창출
- 섬주민 1인당 연간 만크로네 상당(약 2백만원)의 석유 구입비 절약
 - 풍력 발전터빈에 가구당 2천~4천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4백유로 상당의 가구당 투자 수익 발생
 - 지역난방공장 건설·각종 개인난방 교체시 섬내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 다만, “10년내 섬주민들의 자동차 10%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한다는 수송부문의 계획은 전기자동차의 경제성 부족으로 실패
 - 향후 삼소도는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유채씨유 등 바이오 연료 생산증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배출 절감에 주력 예정

3. 성과 중시 매니지먼트 (Result-based management 즉 RBM)

1) 기존의 국제협력

- 국제협력 형태 :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는 국내의 타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교류”형.
 - 지자체 간 자매결연
 - 지자체 간 우호 교류협정

○ 교류사업 형태 :

- 인적교류
- 문화·스포츠교류
- 기술·학술교류
- 산업·경제교류

○ 주요 교류

- 승인전 사전 교류
-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조인식 참여
- 지자체장 취임 축하 방문
- 상대 지역의 중요행사 참여
- 우수사례 발굴견학
- 상대 지역에서 우리 자치체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 workshop 참가
- 부수적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

○ 빈도 : 연 2-4회.

○ 지속가능성

- 활발
- 지지 부진 그러다 단절, 가끔 연락 오면 당황.

2) 성과중심적 국제협력 체제 확립

- 국제협력 활동을 input, output, outcome, impact라는 로직의 흐름에서 그 실적, 결과 (output, outcome, impact)의 달성도로부터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전략.
 - 활동의 목표와 그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
 - 설정된 지표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에 따라서 평가라는 상세한 검증 작업 실시.
 -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변경된다.
- 또, RBM에서는 실적이나 결과에 관한 정보를 행정 활동의 관계자에 대해서 공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확보.
- 평가 시스템의 구축 (별첨1 참조)
 - 국제협력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 지역주민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 투명성의 향상,
 - 평가와 제언의 정책으로의 피드백이 필요
 - 사후 평가뿐 만이 아니라 중간 평가와 사전 평가가 요구됨.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내부 평가 이외에도 외부 평가, 합동 평가, 독립 평가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
 - 국제 협력 사업의 평가 기준 항목
 - 타당성
 - 유효성
 - 효율성
 - 파급효과
 - 지속성

○ 평가결과의 활용

- 내부 관계부서간 사업교훈 공유 및 향후 업무실시에 반영하여 성과 제고에 활용
- 향후 국제협력 정책·제도·운영에 반영
- 제한적인 국제협력 역량을 감안,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방식 추구
- 국제협력의 1차 중기계획 완료시점을 목표로 평가예산, 평가인원 증대 및 평가체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 ('평가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작성)
- 초기단계에는 사업수행 부서에 평가로 인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
- 평가업무지원 및 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연구기관 활용

○ 평가체계

- '평가소위원회'가 평가항목,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하고 사업의 목적·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평가지침 설정
- 동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한 후, 동 결과를 '평가소위원회'에 제출
- '평가소위원회'는 매년 부서의 자율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과제 중 특정분야(1-2개)를 선정,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
- 평가소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부지사
 - 위원(8인 정도)
 - 도청측 : 3인
 - 민간측 :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5명)

○ 평가시기 및 주기

IV. 주민참여

1. 관주도의 국제협력

- 1) 주민 참여 현황
 - 과거의 국제교류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실행
 - 오늘날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대 지자체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관주도의 교류가 일반적임.
- 2) 원인:
 - 국제교류사업이 대부분 주민 발의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음.
- 3) 결과 :
 -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로 귀결되지 않음.
 - 고위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통제와 분석 없이 전시적으로 시행.

2.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국제협력.

- 1) 기관장이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 유명인사 등 소수 엘리트 중심의 연례적인 방문 활동으로부터 벗어나야
- 2)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전환해야
- 3) 시민이 주권행사의 일환으로서 국제화의 주체로 나서고 지자체는 지원 보조역.
- 4) 대상지역의 민간단체와 충남의 민간단체, 대상지역의 시민과 충남의 시민간의 국제 교류.

3. 국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 1) 민관협력체제의 개념
 -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구, 지역주민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
- 2) 민관협력의 필요성
 - 정부 또는 민간이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완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시 관 또는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속성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업측에서는 높은 리스크와 저수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의 국제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대상 지역의 가버년스의 선악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도를 강화하고 충남과의 교류를 풀뿌리 수준에 까지 넓고 깊게 침투시킬 수 있음.
- 3)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 국제화 관련 회의 또는 행사에 대한 민간의 참여 수준을 높이고 참가 범위도 몇몇 열성적인 단체와 전문가에 한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전문가 중심의 현재의 국제협력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민간 주도형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협력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민·관·산·학이 포괄된 협의체 - 주민, 민간단체, 대학 및 학술기관, 기업과 지자체(실무 담당 직원)
 - 기능

- 계획 수립
- 의사결정
- 정책 집행
- 정책 평가

4) 단체장의 역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제협력사업의 주도적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해야.

4. [사례] 전라남도의 개도국 대상 민관 협력 자원외교

1) 광역 지자체 중 최초의 자원기지 확보 사업

○ 인도네시아에 전남도 면적(122만ha)만큼 큰 115만ha 규모의 아시아 자원 기지를 구축

○ 양 지역간 교류협력과 공동 번영을 증진시키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5대 분야 자원개발에 공동 협력기로 협약.

- 해양에너지 : 우뭇가사리 생산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생산
- 농업 : 옥수수, 카사바, 팥 등 생산농장 경영
- 조림 :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한 조림사업
- 광물 : 광물 자원 개발사업 (니켈 등 희유광물 개발사업)
- 에너지 효율 : 기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현지 주택 개량사업)

○ 그 일환으로 솔라웨시 주정부가 전남도에 양식장 100만ha를 비롯, 옥수수 팥 10만ha, 산림조림지 5만ha 등 총 115만ha를 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2) 협약에는 현지 민간기업과 금호석유화학(주)과 전남사료 등 전남도내 10개 민간기업이 직접 협약 당사자로 참여.

○ 금호석유화학(주)은 우뭇가사리 양식지 100만ha를 중부 솔라웨시주에서 제공받아 연간 60만톤 이상의 바이오에탄올 원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 솔라웨시에서 생산된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양산기술을 개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에탄올 생산설비 투자

-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과 물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인 (주)제이앤씨미트의 노하우를 활용.

○ (주)전남사료는 인도네시아에 10만ha의 옥수수, 팥, 카사바 농경지 등 안정적인 사료작물 공급지를 확보, 저렴한 가격의 사료를 전남 농축산 기업들에게 생산·공급.

○ 한성종합조경 등이 실제적인 산림개발을 위해 5만ha의 조림지를 확보해 탄소배출권 조림과 우드펠릿 등 녹색산업 추진.

3) 전남도와 솔라웨시주의 유사점.

-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
- 높은 발전 잠재력

5. [사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1) “지역 제안형 국제협력”

○ 지방 자치체가 주체가 되어 그 지역사회가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을 살린 사업을 실시.

○ 개발 도상 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방 자치체가 가지는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살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일본의 지역사회로의 인재의 수입이나, 현지에 있어서의 기술지도를 조합한 협력을 실시

2) 사례 - 2009년만도 29개 건

- 네팔의 지푸라기·등유대체 연료기술 지원과 보급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北海道東川町 北海道에너지보급촉진협회)
- 중국 十二德堡鄉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여성리더 육성 프로젝트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北海道帯広市 十勝인터내셔널협회)
- 스리랑카 자주방재(自主防災) 활동의 실천과 PTA에 의한 지진 스나미 피해 경감기술의 정비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宮城県 宮城県庁、東北大学대학원 공학연구과 부속 재해제어연구센터)
- 중국 잔류농약분석기술의 보급에 의한 송화강 환경보전지원 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山形県 山形県환경과학 연구센터)
- 인도네시아 중산간지역의 지반(地盤) 재해 방재기술 능력개발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秋田県 秋田県、秋田대학)
- 중국 江蘇省 대기환경개선지원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石川県 환경정책과 石川県 보건환경센터)
- 피지 수난(水難) 구조기술연수 (실시기관 또는 단체 : 松阪지 구광역소방조합)
- 모로코 녹화에 의한 지속적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추진 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岐阜県)
- 미얀마 나마단 지구의 약용 란 재배 증식의 실시와 마케팅루트개발 (실시기관 또는 단체 : 高知県 高知県立牧野식물원)

- 인도네시아 마카살시 시민참가형 폐기물관리 추진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福岡県北九州市 北九州市 환경국 환경경제부 환경국제협력실)
- 캄보디아보편적인평화와인간 안전보장 계발 보급을 위한 인재육성 (평화박물관) (실시기관 또는 단체 : 沖縄県 평화기념자료관)

V. 국제협력 인재 발굴과 양성

1. 필요성과 대상

1) 필요성

국제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적자원 발굴 육성은 관건

2) 국제화 수준 강화의 대상

- 1차적으로는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staff
- 2차적으로는 충청남도 도청의 전 공무원과 도민 특히 미래에 국제화된 사회의 주역이 될 충청남도 청소년들.

2. 국제협력 인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1) 커뮤니케이션 능력

○ 어학능력

- 영어와 현지어로 업무상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하는 능력 (presentation 능력)과 전달방식의 노하우(교섭력)을 포함함.

○ 공감 능력

- 문화가 다른 상대측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처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

2) 국제화 마인드 셋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

- 유엔이 제시한 MDGs에 대한 이해.

○ 원조 관련 지식과 경험 :

- 개도국의 빈곤, 세계 원조의 조류에 대한 지식
- 개도국에서의 봉사 활동 및 NGO 활동 경험.

○지역 관련 지식과 경험 :

- 특정국, 특정 지역의 역사 경제 법 제도 사회풍습, 문화에 관한 지식
- 특정국, 특정 지역에서의 실무 생활 경험

3. 현재의 수준

- 1) 충청남도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11매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상(3점), 중(2점), 하(1점)로 나뉘었을 때 외국어 구사 능력은 영어(1.50), 중국어 (1.44), 일본어 (1.33)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중이하의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 감각이 풍부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있다.

4. 국제협력 인재의 자질과 능력 향상 방안

1)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방안

- 충청남도 도청 내 뿐 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 기업,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어 학습 동아리 구성을 적극 장려하고 교재 및 강사를 제공
- 외국어 구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contest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상
-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제공을 권장
- 수험영어적 접근은 지양하고 따라서 토폴, 토익 등의 성적을 연계시키는 것을 지양. 시험이나 과제가 아닌 재미와 교양으로 접근토록.
- 국제교류를 염두에 둔 상황 설정 등 실용적 외국어 학습 모델 개발.
- 영어, 일어, 중국어 이외의 보편적 언어 스페인어 불어 습득 권장.
-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결혼 이민자의 능력 활용
 -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언어 문화 프로그램 개발
 - 결혼 이민자의 자녀와 지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언어 문화 교실 설치.

2) 글로벌 마인드셋 함양

○ 세계에 대한 이해 - 상호의존과 급격한 변화

- 세계는 사회 경제 종교적 시스템(보이스카웃, 무역, 카톨릭교회), 신문과 방송, 통신(전화, 인터넷), 여행과 이민에 의해 상호연관된(interconnected) 망으로 얽혀 있음.
- 세계는 분리된 영토와 민족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interactive) 역동적인 시스템임.
-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판단, 결정과 행동은 총체적으로 그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 세계관

세계관의 변화	
<p>현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p> <p>1. 자연에 대한 낮은 평가 -상품생산을 위해 인간이 자연 지배</p> <p>-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 우선</p> <p>2. 가까운 존재에 대한 애정 -다른 종(種), 민족을 악용하고 착취</p> <p>-현 세대에 대해서만 관심</p> <p>3.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위험 감수 -과학 기술 우선</p> <p>-경성 기술(hard technology) 강조</p> <p>4. 무제한적 성장 -부족함이 없음</p> <p>-끝없는 소비</p> <p>5. 현 사회에 만족 -경쟁과 위계질서</p> <p>-복잡하고 빠른 생활양식</p> <p>6. 넓은 정치 -비판적 사회운동에 종종 반대</p> <p>-좌 우 정당의 스펙트럼</p>	<p>새로운 패러다임</p> <p>1. 자연에 대한 높은 평가 -인간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p> <p>-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 우선</p> <p>2. 보편적 애정 -모든 종(種), 모든 민족에 대한 애정</p> <p>-미래 세대에 대해 관심</p> <p>3. 통찰(insight)을 통한 위험 최소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정치 사회적 규제</p> <p>-연성 기술(soft technology) 개발</p> <p>4. 성장에 제한 -자원은 유한함</p> <p>-보존 절약이 필요함</p> <p>5. 변화된 사회가 필요함 -협력과 참여</p> <p>-단순하고 숙고하는 생활양식</p> <p>6. 새로운 정치 -비판적 사회운동을 포용</p> <p>-참여 민주주의</p>

○ Global Citizenship

지구촌 시민 (Global Citizen)이란

- 세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세계 시민 (world citizen)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있으며
- 다양성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며
-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고
- 지역사회 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적 과제에 참여하고 그 해결에 기여하며
- 이 세계를 좀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 다문화 인식 (Cross-Cultural Awareness)

다문화 인식은 다음과 같이 4 레벨로 구별할 수 있다

Level	정보	상황	해석
I	피상적 혹은 눈에 보이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인식 : 고정 관념	여행, 교과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민기 어려움 즉 이국적이고 기묘함
II	자국 문화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인식	문화충돌 상황	민기 어려움 즉 감당하기 어렵고 터무니없음
III	자국 문화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인식	지적 분석	인지과정을 통해 믿을 수 있음
IV	타국문화를 내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인식	문화적 몰입, 그 문화속에서 살기	주관적 친숙함 때문에 믿을 수 있음

○ Global Issues에 대한 이해

- 빈곤 : 외채,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물, 원조(ODA)
- 경제성장
- MDGs (별첨2 참고)
- 세계의 분쟁과 평화

5. 국제협력 관련 전문가의 활용

1) 외부자문

2) 특채

VI. 국제 발룬티어 활동

1. 국제 발룬티어 활동의 필요성

- 1) 최근의 주된 조류 - “교류”형에서 “협력”형으로.
- 2) 전시적 활동에서 벗어난 실질적 활동
- 3) 관 주도 엘리트 중심에서 민관협력체제로의 전환 모델
- 4) 충청남도의 국제협력 인재의 자질과 능력 향상과 동시에 상 대국 지자체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 협력 가능

2. 국제 발룬티어 활동의 구조와 process

1) 수요 발굴

- 충청남도 도청과 상대국 지자체 간의 봉사단 파견 MOU 체결
- 충청남도 도청과 상대국 지자체 간의 실무 협의
 - 수요처 : 상대국 지자체, 대학, NGO
 - 수요분야 :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촌개발, 정보통신, 환경, 건설
 - 수요인력 확정

2) 선발과 교육 훈련

- 선발 : 도청 주관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교육 훈련 : 대학 또는 NGO에 위탁
- 훈련기간 : 1개월

3) 비용

- 한국 국제협력단에 사업 신청
- 행정 안전부에 사업 신청
- 봉사단원 일정 자비 부담

[별첨 3] 참조

[별첨 1. 국제 협력 사업의 평가체제 구축]

1. 평가의 필요성

1) 평가의 목적

- 일반적으로, 교훈을 배우는 것에 의해서 장래의 개선으로 연결한다고 하는 관리(management)의 측면과
- 설명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이 있음.

2) 평가(evaluation)의 정의.

- 현재 실시중, 혹은 이미 종료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그 계획,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검증.
- 평가는, 종합적인 동시에 상세한 검증 작업이므로 평가에 의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 (평가 설문 : Evaluation Questions)를 설정해 실시해야.

3) 평가 이외의 기타 개선 방법

○ 모니터링(monitring)

실시중인 협력사업의 사업 운영 부문이나 주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목표의 진척 및 달성도, 배분된 자금의 활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의 지표에 관한 체계적으로 집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하는 지속적인 기능.

○ 리뷰(review)

정기적 혹은 수시로 행해지는 국제협력사업의 실적(퍼포먼스)에 대한 검증.

○감사(audit)

- 국제협력 조직 업무의 개선이나 (조직의) 가치 부가를 목적으로 하여 계획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행위.
- 리스크 관리, 통제, 조직 운영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검증, 개선하기 위한 계통적 규율을 통하여 조직이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평가의 종류

1) 타이밍별

- 사전 평가 : 국제협력 사업 실시 전에 행해지는 평가.
- 중간 평가 : 국제협력 사업 실시의 중간 단계에 행해지는 평가.
- 사후 평가 : 국제협력 사업의 종료후에 행해지는 평가.

2) 평가자별

○ 내부 평가

국제협력 사업관계자 혹은 국제협력 사업 실시 기관의 사업 운영 부문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는 부서 및(또는)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

○ 외부 평가

국제협력 사업 실시 기관 이외의 조직 및(또는)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

○ 독립 평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제협력 사업의 계획 및 실시의 책임자로부터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

○ 자기 평가

국제협력 사업의 계획 및 실시 관계자에 의한 평가.

○ 합동 평가

복수의 기관 및(또는) 관계자가 참가해 실시하는 평가.

○ 참가형 평가

국제협력 사업 기관 및(수익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대표

가, 공동으로 평가를 계획, 실시, 해석하는 평가.

3) 대상별

○ 테마별 평가(thematic evaluation)

복수의 나라, 지역, 분야를 횡단해서 특정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실시 하는 평가.

○ 국별 프로그램 평가

대상국에 있어서 총남도가 담당하는 복수의 국제협력 사업 및 그 배경에 있는 국제협력 사업 전략의 평가.

○ 섹터 프로그램 평가(sector program evaluation)

특정한 국제협력 사업 목표의 달성에 공헌하는, 일국내 혹은 복수국에 걸치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사업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

○ 프로젝트 평가

개개의 국제협력 사업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며, 일정한 자원과 실시 기간 내에, 또, 때때로, 보다 광범위하게 미치는 프로그램의 범위내에 있어서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

4) 기능별

○ 형성 평가(formative evaluation)

- 실적(퍼포먼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
- 대부분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실시 단계에서 행해

짐.

○프로세스 평가(process evaluation)

- 실시 기관 내부의 상황, 정책 수단, 서비스 제공의 메

카니즘, 사업 실시 방법, 또 이러한 제휴 상황의 평가.

○총괄 평가(summative evaluation)

-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의 단계 혹은 종료시에, 당초 전망된 outcome(성과)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평가의 기준

계획,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1) 타당성(Relevance)

국제협력 사업의 목표가 수익자의 요망, 대상국의 요구, 지구 규모의 우선 과제 및 국제협력 사업 관계자와 총남도청의 정책과 정합하고 있는 정도.

2) 유효성(Effectiveness)

국제협력 사업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혹은 달성될 것이 전망되는 정도이고 목표의 상대적인 중요도도 감안하면서 판단한다.

3) 효율성(Efficiency)

자원 및(또는) input(투입) (자금, 전문 기술(지식), 시간 등)이 얼마나 경제 적으로 결과를 낳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4) 임팩트(Impact)

국제협력 사업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불문 하고 생기는 긍정적, 부정적 및 일차적, 이차적인 장기적 효과.

5) 지속성(자립 발전성)(Sustainability)

- 국제협력 사업 종료 후에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립적 편익의 지속 성.
- 장기적 편익이 계속될 개연성.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의 순익이 없어져 갈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

4. 분석 방법.

1)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국제협력 사업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분석 또는 추정.

- 국제협력 사업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는 부정적 결과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검사,

-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및

- 명확한 리스크에 관해, 그것이 생기는 확률 및 예상되는 임팩트를 정량화하는 프로세스.

2) 사례 연구(case study)

어느 특성의 집단에 대해서, 면접법 또는 관찰법등에 의해서 구체적인 특징을 분명히 하고 유사한 케이스를 겹쳐 쌓는 것에 의해서 일반적 특징으로서의 원리를 개발하는 연구 방법 .

3)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시책 등의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을 추정 또는 추측하고 이것을 화폐 가치로 표시해서 그 비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시책등을 실시하는 것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한 요인으로 하는 수법.

4) 비용 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시책 등의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일 없이 비교하는 수법.

5) 산업연관 분석(input- output analysis)

투입- 산출 분석, 타부문 분석이라고도 함.

경제 체계를 재화와 서비스를 비결합 생산하는 산업 부문 및 가계 등 최종부문으로 나누어 소비의 최종수요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 부문의 균형 산출량을 요구하는 것.

[별첨 2.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약칭 MDGs)]

1. 8가지 Goals

1) 빈곤 감소

새천년 개발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 선진국에 살고 있는 10억인이 세계의 총소득의 4/5 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1990년 현재 저소득국과 중간 소득국에 살고 있는 10억인(전 세계 인구의 대략 28퍼센트)은 하루에 미화 1달러 미만으로 생존.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수품 예컨대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음.

○ MDG의 첫 번째 목표는 2015년 까지 이 수치를 14퍼센트로 줄여서 5억인의 인구를 절대 빈곤(extreme poverty)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 비록 이것이 빈곤의 근절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인이 먹고 입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갖추는 단계로의 일보전진.

2)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을

새천년 개발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전 세계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빈곤과 교육

- 교육은 빈곤, 질병과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
-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커다란 발언권을 제공.
- 교육 없이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있을 수 없음.

○ 1990년에 대부분의 나라는 2000년 까지 모든 어린이의 초등교육 달성을 약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음.

- 여전히 1억 4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음.
- 이들 대부분은 개도국의 어린이들이며 57 퍼센트는 여자 어린이

○ 2015년 까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등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할 것을 정부가 보증해야 함.

○ 현재 155개 개도국 중에서 37개국만이 보편적 초등교육 수료를 달성

3)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새천년 개발목표 3: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능력 고양
 Target (세부목표) :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2015년까지는 모든 수 준의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앴

- 빈곤과 여성
 -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정치적, 법적으로 차별.
 -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장애물이 있음.

- 성적 불평등
 - 부모들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 유아의 생존율이 낮음.
 - 많은 나라들 특히 저소득국에서는 차별 또는 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학교 중퇴율이 더 높고 학력수준도 더 낮음.
 -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좋은 직장을 잡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더 어려움.

- 여성들의 더 나은 기회를 갖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좀 더 커다란 역할을 하기 위해 뒷받침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음.

4) 아동 사망률 감소

새천년 개발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5세미만 아동 사망률 2/3 감소

- 아동 사망의 실태
 - 전 세계적으로 1천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5세 이

전에 죽고 있고 그 대부분은 개도국 아동. 개도국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5세 이전에 사망.

- 이러한 사망의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 위생, 좋은 식사, 보건에 의해 예방될 수 있음.

- 아동 사망률 감소 방안
 - 전 세계의 자원을 좀 더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 적절한 보건과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접종 또한 홍역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

- 방안의 실효성
 - 세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
 - 단지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가능.

5) 산모의 건강과 안전

새천년 개발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출산 시 산모사망률을 3/4 감소

- 모성 보건 문제의 심각함
 - 매년 50만명 이상의 여성 (그 대부분은 개도국 여성)이 임신 중 혹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 임신 혹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아이는 3백만명
 - 영국에서는 5,800명 중 1명의 여성이 임신 혹은 출산 과정에서 병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데 비해 에디오피아에서는 14명중 1명의 여성이 이러한 이유로 사망.

선진국에서 평균 산모 사망율이 100,000명 출산당 21 인데 비하여 부룬디, 차드, 에디오피아, 르완다, 시에라 리온, 수단에서는 1,500명 이상 사망.

○ 모성 보건 문제의 중요성

-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기대해야 할 일이지 엄마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건이어서는 안됨. 기본적 인간 생명에서의 이러한 중대한 불평등을 하루 빨리 종식해야.

○ 모성 보건 증진 방안

- 이러한 사망의 대부분은 예방 가능.
- 산모가 적절한 보건과 기본적인 의약품의 혜택을 받을 수 만 있다면 그 들은 생존하여 자기 가정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음.
- 보건과 가족계획, 피임과 적절한 교육은 산모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수단

6) 전염병 퇴치

<p>새천년 개발목표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p> <p>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저지 및 반전(反轉)</p> <p>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반전</p>
--

○ 전염병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

- 2003년에 3600만명의 성인과 2백만명의 어린이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고 그들 중의 98 퍼센트 이상이 개도국 사람.

- HIV/AIDS와 말라리아 같은 질병은 빈곤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러한 질병은 인간의 생명을 대규모로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 2015년 까지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반전시키는 것은 지구촌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 전염병 퇴치 방안

-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조치와 적절한 치료, 적절한 의약품이 필요. 그러나 2003년에 HIV 치료가 필요한 5내지 6백만 명 중에서 단지 7 % 만이 그 혜택을 받음.
- 의약품 외에도 교육도 병의 전파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
- 말라리아를 막기 위해 해충약 처리를 한 모기장을 공급하는 것도 실질적인 해법.

7) 깨끗한 환경

<p>새천년 개발목표 7 :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p> <p>Target (세부목표) :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반전(反轉)</p> <p>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p> <p>Target (세부목표) :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슬럼거주자의 생활여건의 획기적인 개선</p>
--

○환경에 대한 미증유의 위협.

- 기술과 교통의 발전에 결부된 인간 활동은 종종 산림

을 파괴하고 동물을 멸종시키며 오염을 증대.

- 천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나 특히 빈곤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 더 피해가 큼.

○ 경제발전과 환경, 연대

- 경제발전과 깨끗한 환경사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때때로 어려운 선택을 하여야.
- 신흥 개도국 예컨대 인도와 중국 등이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
- 만약 부가 환경 훼손의 결과 생겨난다면 우리는 바로 부의 원천자원을 파괴하게 될 것임.
- 모든 국가들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필요가 있음.

○ 슬럼거주자의 생활여건

- 현재 세계 인구의 1/3이 도시 슬럼가나 shanty towns 에 거주.
- 개도국의 많은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성장을 계획할 자원이 없음.

8)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의 공유

새천년 개발목표 8 :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Target : 보다 개방적이며,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시스템의 발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선정(good governance), 개발 및 빈곤완화의 책임 포함.

Target : 최빈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역점 지원
 최빈국 수출에 대해 관세 및 쿼터 완전 면제, 과도채무빈국(HIPCs)들을 위해 개선된 부채탕감 프로그램 및 양자간 공적부채 탕감, 빈곤완

화에 매진하는 국가에 대해 ODA 증액 지원.

Target : 내륙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역점 지원.

Target :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 (장기적으로 상환가능한 부채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단을 통해 해결)

Target : 개도국들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해 적정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발 및 이행.

Target :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들이 필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Target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 관련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

- 여덟 번째 목표는 나머지 일곱 가지 목표를 보완.
- 개도국들이 나머지 일곱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발전의 방향을 잡고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여덟 번째 목표는 이러한 개발을 돕기 위해 세계가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

○ 구체적 방안

- 무역이 개도국에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 불공정하고 개도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세계 무역 시스템과 룰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의 필요 : 원조는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해야하고 원조 수혜국이 적절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다년 원조여야.
- 부유한 국가들이 또 다른 도움 방식은 개도국의 빈곤

을 탕감하는 것. 이것은 부유한 국가들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님.

2. 새천년 개발목표의 진척상황

- 1) 2015년 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의 새천년 개발목표의 진척도는 매년 측정되고 있음.
 - 처음 7개의 목표는 그 목표 달성 또는 개선여부를 확인할 책무를 개도국 정부에 지우고 있음.
 - 여덟 번째 목표는 나머지 일곱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어느 조치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원조를 제공하고, 무역의 룰과 관행을 개선하며 부채를 탕감할 책임을 부유한 국가와 지구촌 사회에 요구하고 있음.

2) 새천년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 현재의 진척 상태로 본다면 목표의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의 해외원조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바가 여전히 많고 부채탕감을 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불공정한 무역의 룰과 관행은 여전히 약속의 반복으로만 끝나고 있음.

3) 새천년 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한 배경의 노력

- 개발도상국 지원은, 100년에서 500년에 걸친 빈곤의 역사와 근원을 생각한다면, 개발이 뒤떨어진 빈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문제일 수 없음.
-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총회에서는, “빈곤은 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을 지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고, 인류의 ‘책임·의무’의 문제가 되었다” 라고 선언.
- 따라서 그 달성을 위해 전 지구촌 사회의 노력 증진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해야.

3.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한국의 기여

1) 한국의 책무

-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로서 경제 및 무역 규모면에서 세계 10위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과거 전후복구와 경제개발과정에서 선진국과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에 힘입은 바에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2002년 현재 66.0%) 전체 수출 중 대개도국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71%(2004년 1사분기 현재)에 도달.

2) 한국의 원조

- 우리나라 ODA는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자금으로 개도국 연수 생을 초청, 기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부터 출발.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발족.
- 1990년대 들어 ODA공여가 본격적으로 확대 되었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달러 기준 연평균 17.7% 성장)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조공여자(donor)로서의 책무를 요구받게 되었음.

3)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한국 ODA의 개혁과제

- ODA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ODA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ODA의 기본이념**을 포괄하는 ODA 기본법 또는 헌장을 제정해야.

- 한국 ODA의 목적이 빈곤문제의 해결과 MDGs의 실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MDGs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ODA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 및 우선 과제를 수립하여야.

○ ODA 규모의 증대

- 국제사회는 원조국은 국내 총생산(GNI)의 0.7%를 정부 개발원조(ODA)에 총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 목표는 북유럽 일부 국가가 달성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15년까지 달성하는 타임 테이블을 제출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은 아직 달성 공약을 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04년 현재 0.06 %에 불과.

○ ODA의 질적 개선

- 무상원조에 비해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높은 유상원조의 비율을 낮춰야
-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구속성화,
- 최빈국(LDC) 특히 사하라 이남 국가에 대한 원조 증대,
- 기초적 사회 서비스 분야(기초 교육, 기초 의료, 영양, 안전한 음료수 및 공중위생)에 대한 원조 집중이 필요.

○ OECD/DAC 가입

-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OECD/DAC에 가입하여야.

○ ODA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파트너십 강화,

○ 수혜국의 주체성(ownership) 확대

[별첨 3. 해외봉사 활동]

1. 국제 발룬티어 활동의 역사

1) Peace Corps의 창립

- 해외봉사단은 1960년, 당시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John F. Kennedy가 미시간대학교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시작되었음.

- Kennedy는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살며 일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조국에 봉사할 것을 촉구.

- Kennedy가 1961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세계의 평화와 우의 촉진을 위해 Peace Corps라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창설.

- 창설 이래 190,000명 이상의 봉사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

- Peace Corps는 창립 이래 이해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미국인이 수혜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수혜자들의 미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2) 한국 정부의 국제 발룬티어 활동

- 한국에서는 1990년에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에 해외봉사단 총 44명을 파견한 것이 그 시작.

○ 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과 함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관되어 매년 파견 대상국 및 파견 인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KOICA 봉사단 사업의 목적

- 당초에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부문 전문 인력 양성과 대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생층에 대한 건전한 국가관 진작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여 대개도국 경제 진출을 위한 기반을 신장하는 것”
- 현재는 “협력대상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해당 국가와의 우호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며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실천적 참여를 하는 것”

3)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역사

○ 한국의 민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한국해외원단체협의회(KCOC, 이하 해원협)²²⁾에 가입된 개발 NGO²³⁾를 중심으로 독자적 민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그 동안 개발NGO에 대한 프로젝트사업만을 진행하여 오던 중 개발NGO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봉사사업 프로그램 부재로 NGO단체 및 일반국민들이 폭 넓은 봉사사업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KOICA 지원을 받는 NGO단체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인력이 부재한 결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 아래 KOICA-NGO 봉사단 파견제도를 도입.

○ KOICA-NGO 봉사단 파견제도는 NGO 봉사단 선발, 파견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해외원단체협의회(KCOC)에 위탁하는 협정을 한국해외원단체협의회와 체결하고 KOICA가 지원하는 NGO 프로젝트사업 현장에 KOICA-NGO 봉사단을 파견.

- KOICA가 지원하는 NGO의 여타 협력사업과 봉사단 파견사업을 연계하여 대 개도국 협력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즉 정부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며
- 일반국민 및 개발 NGO의 ODA 사업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국민참여형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 바탕에서 시작되었음.

2.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현황

1) 규모

○ KOICA-NGO 봉사단 파견사업은 2004년 33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9개국의 한국 개발 NGO 8개 단체의 현지 사업장에 파견한 것이 그 시작.

○ 2005년에는 8개국 9개 단체사업장에 35명의 단원을 파견

○ 2006년에는 명칭을 ‘KOICA-NGO 봉사단’에서 ‘한국 NGO 해외봉사단’으로 바꾸어 20개국의 18개 단체사업장에 80명, 2007년에는 32개 국가 30개 단체사업장에 188명을 파견.

2) 파견경비

- 파견단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항공료, 현지생활비, 주거비, 프로젝트비)와 국내훈련비, 사업평가 및 홍보비 등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KOICA에서 지원
 - KOICA 파견단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약 62% 수준으로 지급.

22) 1999년에 설립된 한국개발 NGO의 umbrella 조직으로서 현재 60여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network 사업(회원 단체에 정보, 경험, 지식, 기술, 교육 program을 제공하고 외국 개발 NGO 및 개발 NGO의 협의체, 국제조직과 연대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정책제언 및 홍보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23) 개발도상국에 대한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그리고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비영리 조직을 말한다.

○ 경비와 숫자

- 2007년 까지는 파견경비를 줄임으로써 파견 인원을 늘리자는 방침이 기초를 이루었음.
- 2008년부터는 파견 단원에게 최소한의 생존근거를 보장하고 질 높은 단원을 선발하기 위해 KOICA 봉사단 지급 경비 대비 80% 수준으로 파견 경비를 상향 조정하고 그에 맞춰 총파견 인원의 수를 조정.

3) 선발 및 교육

○ 초기의 방식

- 2007년에는 파견 NGO에서 단원을 선발하고 해원협은 건강부적격자 등에 한하여 선발에서 제외하는 방식.

○ 객관적 선발

- 2008년부터는 선발과정에 대해 전체 파견단체와 전국민이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선발을 위해
- 파견 단체에서 선발된 후보단원을 대상으로 해원협 사무처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을 하도록 방침을 전환.

○ 교육

- 파견 전 국내교육 : 해원협에서 1주, 파견단체에서 2주 동안 진행
- 파견 후 교육 : 파견단체의 현지지부에서 현지 적응교육.

3.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성과

- 한국 NGO 해외봉사단은 봉사활동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투철한 사명감, 적극적인 활동태도로 인하여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동기부여와 소속 NGO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근거하여 개도국 오지에서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 KOICA 봉사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유연성과 현지 사회와의 밀착성 및 적응능력에서 두드러짐.

2)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한계

- 정체성 문제
- 훈련
- 단원관리
- 귀국단원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3)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평가

○ 목표달성도

- 봉사단원이 개도국에 파견되어 현지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수원국의 빈곤완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기본 목표는 달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봉사단원의 기술, 지식, 경험의 이전은 현장참여형, 교육지도형, 연구사무형, 연계 업무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 이전 현황 역시 높음.
- 봉사당원의 전문성, 적응력, 적극성 등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현지 관습에 대한 이해도, 현지인에 대한 편견, 현지어에 대한 구사능력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타당성과 효율성

- 사업의 타당성 즉 현지인과 현지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여 활동하고 있느냐 여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수록 증대하는 수요에 비해 충족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파견국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어 사하라사막 이남의 절대빈곤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파견이 요구됨.
- 수도나 대도시 보다 오지에 배치되어 있어 빈곤퇴치를 위한 헌신성이 두드러지나 간혹 신변상의 안전과 주거, 식사의 어려움, 질병발생시의 대처의 곤란함, 심리적인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 파견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어나 태권도교육과 같은 부분에서 벗어나 현지 실정에 걸맞는 빈곤퇴치사업의 성공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고 특히 농업 축산분야 등의 전문기술 인력을 발굴 파견하는 데 대한 필요가 높음.

○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그 중요도가 높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견단원의 파견기간이 짧으므로(2006년에는 6개월, 2007년에는 1년) 파견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야.
- 귀국단원과 차기파견단원의 파견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예컨대 2006년 12월 귀국, 2007년 4월 파견) 현지 지부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음.
- 귀국단원이 그 경험을 한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커다란 문제.

참고자료

충청남도 투자통상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9년 9월
 성태규 외,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06년 10월
 박용래,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7년 2월

통상지원분야의 장·단기 비전과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박종찬

1. 통상지원의 필요성 및 목적

1) 통상지원의 필요성

- 한국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대비 수출+수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가 높은 편이고, 특히 최근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그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9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무역 의존도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도 WTO, FTA 체결 등의 자유무역체제의 진전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수출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흑자를 대폭 만들어내어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즉, 좁은 국토, 적은 인구 그리고 빈약한 부존자원으로 한국의 생존은 원부자재를 들여와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내수는 물론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비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충남은 한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LCD 등 견실한 제조업과 IT산업을 토대로 전국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 충남 서북부 지역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그리고 태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기업 중심 산업 클러스터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표 1> 충남의 수출입현황

구 분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무역규모	수출(억\$)	390	478	429	350	450
	수입(억\$)	224	267	295	200	310
	무역수지	166	211	133	150	140

-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대기업은 제품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체직원의 우수한 역량과 잘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수출 시장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제품 수출은 직원의 역량 미흡과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수출 시장을 스스로 개척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충남의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에는 전국대비 1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2009년도에도 상반기에 9.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출 순위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하였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충남은 최근 수년에 걸쳐 대한민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넘어서는 흑자를 보이고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가 반도체, 자동차, 액정디스플레이 그리고 석유화학 등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충남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아쉬움
 - 그러나 한 가지 고무할만한 점은 200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전체 충남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임. 이러한 현상은 충남의 중소기업 가운데

국제시장에 나가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어 이러한 추세의 원인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의 인삼가공이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농산물과 인삼의 수출 또한 향후 충남의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이후 충남 농산물 수출추이를 분석해보면 매년 목표를 초과하여 수출을 달성하고 있고 실적 또한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앙부처인 농림식품부에서도 미래에 농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향후 충남의 농산물 수출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됨

<표 2> 충남의 대기업, 중소기업 부문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

구 분	충청남도			전 국	
	합 계	대 기 업	중소기업		
	금 액	금 액	금 액		
2009년 (1~5월)	수 출	13,302	11,207	2,095	133,095
	수 입	6,862	-	-	118,898
	무역수지	6,440	-	-	14,197
2008년	수 출	42,936	37,399	5,537	422,007
	수 입	29,556	-	-	435,274
	무역수지	13,380	-	-	△13,267
2007년	수 출	47,823	43,210	4,622	371,489
	수 입	26,674	-	-	356,846
	무역수지	21,149	-	-	14,643

<표 3> 충남의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목 표	130	300	350	400
실 적	155	303	355	127
달 성 률	120	101	101	31.8

- 인삼수출 또한 매년 절대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충남의 주요한 충남의 중소기업 수출 품목으로 중점 지원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4> 충남의 인삼수출 현황

(단위 : 천\$, %)

○ 충남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크고 금산의 인삼 재배 및 부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목 표	68,000	70,000	80,000	85,000
실 적	59,756	68,960	80,028	27,851
달 성 률	88	99	100	32.8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의 산업구조와 수출구조를 분석해보면 대기업은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우수한 인력 및 시스템으로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의미가 크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 제품, 농수산물 제품 그리고 인삼제품의 수출은 매년 신장하고는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인력의 부족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충남소재 중소기업, 농수산물 가공기업 그리고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통상지원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2) 통상지원의 목적

○ 충청남도 차원의 통상지원은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대기업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농수산업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창출시스템의 정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궁극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충청남도 소재 대기업은 스스로의 수출시장 개척역량이 우수하므로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의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하여 한정된 통상지원 능력을 중소기업 통상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농수산물과 인삼수출 등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한다고 봄

○ 이러한 충청남도 차원의 통상지원 필요성과 목적 아래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통상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남 통상지원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여 충남 통상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충남 통상지원의 장·단기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2. 충남 통상지원의 현황과 과제

1) 충청남도 통상지원의 현황

○ 현재, 국외 시장개척사업 등 국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은 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 해외 Networking 부재 등으로 인해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aT), 그리고 한국무역협회등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임

○ 충청남도의 경우도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통상지원 및 수출지원 유관기업과 공동으로 또는 지원을 받아 통상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임

-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충남소재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은 자체의 우수한 인력과 수출역량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력부족과 해외시장 개척 경험 등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손꼽을 정도임

-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제품 생산기업 가운데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통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은 충청남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앞의 자료에서도 보는 것처럼 충남소재 중소기업, 농수산물 제품 제조기업 및 인삼 관련제품 생산기업의 수출은 매년 신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남소재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제품 기업의 구조를 분석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지원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의 큰 문제인 만성적인 부품소재 부문의 무역구조 결함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봄
- 이러한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통상지원을 위한 활동은 인력과 경험면에서 충청남도 자체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앙의 수출관련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집행해왔으나 통상지원 활동의 연속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자체의 통상지원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평가됨

<표 5> 충남의 중소기업 지원업무 유관기관

기관명	주요업무	담당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부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통상지원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해외홍보, 통번역,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업체지원 등	통상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동차부품 토탈마케팅 해외 지사화 사업 수출거래선 발굴	통상지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수출보험·보증료	통상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전충남지사	농수산물 수출전반	농수산물수출

2) 2009년도 충청남도 통상지원 중점 현황

- 2009년도에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의 중점 추진사업은 수출기반 구축사업,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그리고 인삼사업기반화 등이었음
 - 수출기반 구축사업의 내용으로는 수출지원기관과 MOU 체결, 「수출안내센터」 운영, 충남 무역정보지 발간, 주1회 수출업체(농가) 방문제 시행 그리고 해외무역관 운영 활성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임
 -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사업 내용으로는 중국시장 진출 확대, 농수산물 수출 강화, 충남우수상품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운영 그리고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임
 - 인삼사업기반화 사업 내용으로는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건립, 인삼수출 전문법인 설립, 충남인삼 세계화 공동브랜드 개발 그리고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임
- 통상지원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이 중점적으로 펼쳐지고 있음
 - 통상지원담당은 자동차부품 Total Marketing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Target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수출기업 육성, 해외시장개척 항공료 지원,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무역전문가활용 수출초보기업지원, 수출유망상품 해외홍보 지원, 수출초보기업 해외거래선 발굴 지원,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수출관계자합동 워크숍 개최, 무역의 날 행사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임
 - 농수산물수출담당 부서에서는 수출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

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농산물 카탈로그 제작 지원, 농수산물 수출지원단 운영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임

- 인삼산업담당 부서에서는 고려인삼의 향당뇨 효능연구, 고려인삼의 승열작용 허구성 연구, 고려인삼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추진, 충남 인삼 해외홍보마케팅사업, 금산인삼 명품화사업, GAP 인삼생산능가 확대 지원사업,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사업, 고품질 인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GMP 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임
- 이상과 같이 충청남도에서는 통상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고, 이러한 정책은 충청남도과 중앙의 중소기업 통상지원 각 유관기관과 협조아래서 진행되고 있음
- 충청남도 통상지원 활동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보면 충청남도 소재 총중소기업 115,392개 가운데 약 1%인 1,163개의 중소기업이 통상지원 정책의 수혜자로서 통상지원 혜택을 입었음
- 1,163개 수혜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44.4%인 516개 기업이 해외마케팅과 관련된 통상지원을 받아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수출지원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수출저변확대 지원 정책의 수혜로 41%인 총 477개 기업이 정책의 수혜를 받았음
- 마지막으로 170개 기업이 무역의날 행사 등 수출기반조성과 관련된 통상지원 정책의 수혜자로 집계되고 있음

<표 6> 충남의 수출지원사업 총괄표(2009년도)

사업별	사업량	규모 (업체)	사업비 (백만원)				협력기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20사업	1,163	2,445	776	1,634	35	
해외마케팅	소계	7사업	516	1,710	604	1,106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0회	70	350	140	210	중진공 kotra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2회	80	260	104	156	중진공 kotra
	Target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40	90	36	54	무역협회
	충남우수상품전 개최		50	480	192	288	kotra
	자동차부품 토털마케팅 지원		11	200	80	120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65	130	52	78	kotra
해외시장개척 항공료		200	200		200	중진공	
중소기업	소계	10사업	477	704	172	502	30
수출저변확대	수출보험보장료 지원		100	150	60	90	수출보험공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회	100	130	40	60	30 중진공 무역협회 kotra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12	30	12	18	중진공 kotra
	수출기업육성		30	150	60	90	무역협회
	통번역 지원		50	50		50	무역협회
	수출거래선 발굴 지원		25	50		50	kotra
	무역전문가 활용 수출기업지원		20	30		30	2개 대학
	수출유망상품 해외홍보지원		120	84		84	무역협회
	한중일 산업교류전 참가		5	15		15	kotra
	세계한상대회 참가		15	15		15	무역협회
수출지원기반조성	소계	3사업	170	31	26	5	
무역의 날 행사		100명(80)	10		5	5	무역협회
수출 및 공무원 합동 워크숍		100명(40)	10		10	무역협회	
해외시장진출 설명회		50	5		5	무역협회	
행사운영비(통상관련)		-	5		5	도	
실비보상금(자문/협의)		-	1		1	도	

○ 위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농수산물 수출기업을 대

상으로 다양한 통상지원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나 도내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실정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통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구축이 시급함

- 즉, 중앙의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충청남도가 협력하는 통상지원 활동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활동이 중심이 되지만 수탁기관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열의 부족으로 인해 맞춤형 통상지원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통상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대부분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위탁사업 수행(해외출장), 예산집행 정산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참여업체의 경우도 무역실무 능력 부족, 언어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 인식이 희박하여, 보통 1~3년간 업체 또는 제품을 테스트한 후 구매가 성사되는 것이 기본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통상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후관리에 비중을 둔 지원시스템으로의 혁신이 필요함

- 그리고 수출업체 발굴, 자생력 확보에 있어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부족과 두려움으로 해외마케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참여하는 업체 또는 농가라 하더라도 영세성으로 인해 무역전문 직원 채용 등 해외영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부분 회사대표 1인이 국내외 마케팅까지 전담하는 문제점이 있음

○ 그리고 상품은 좋으나 내수에 머물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자생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는 통상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지만, 통상전문 인력의 부족 등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농수산물과 인상의 생산 및 가공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투자통상실이 신설되면서 통상지원과가 2009년에 독립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농수산가공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3) 통상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 개선노력

○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충청남도 통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 혁신 노력을 펼치고 있음

(1) 통상지원 system 혁신

○ 해외마케팅 업무 위탁방법 개선

-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aT 등에 전부 위탁하던 기존의 틀을 깨고 법적으로 위탁 가능한 법인·단체에까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지경부장관지정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위탁기관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수탁기관의 행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함

- 시장개척단과 전시박람회 등위 통상지원 활동에 있어서는 2010년 해외마케팅 사업 위탁시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0년도 사업 확정 후 세부사업별 추진희망자 모집 후 10명 내외의 대학교수, 해외마케팅 우수업체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수행능력 심사후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 사후관리의 Online System화

- 충청남도의 적극적 의사개진으로 중진공에서 '09.9~10월 완료 목

표로 작업중으로 업체별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수출성사 등 제반 사항을 전산화하여 월단위로 업체별 후속조치, 바이어 관리실태 등을 전화, 방문, e-mail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도와 중진공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업체별·시기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외마케팅 수탁기관·단체·법인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수행 후, 일정기간 경과(1년) 시점에서 진성바이어 발굴여부, 사후관리실태, 고객만족도 등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수탁자에게는 사업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부실수탁자는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2)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

○ 주1회 수출업체(농가) 방문제 확대시행

- 그간 사무실 중심의 관리위주 행정행태에서 탈피하여 통상지원과 소속 전체 직원이 주1회 이상 기업체 및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통상지원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 (※ 1인당 주 1회 방문 : 4업체 × 5개월 × 15명 = 300업체)
- 수출기업 및 농가의 애로사항, 문제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사후관리 on-Line system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함
- 내수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수출초보기업은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자생력 확보를 지원함

○ 수요자에 필요한 「무역정보 사이트」 운영

- 그간 도와 추진 통상지원 정책에 대한 알림·홍보 활동이 미약하여 도의 통상지원 정책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

출 기업·농가 등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역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함

- 도와 홈페이지(chungnam.net) 「수출정보코너」를 보완하여 눈에 띄게 배치하고, 수출기업·농가 「참여마당」, 해외마케팅 참가신청 「바로가기」 등을 개설하여 수출관련 모든 지원제도를 홍보, 안내함으로써 중소기업(농가)의 수출활성화를 촉진함

○ 수출 「인적 네트워크」 기능 강화

- 도와 수출과 연계 가능한 「국내외 무역전문 인력」을 리스트화 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수출시장 정보획득과 판로개척 활성화에 도움을 받음
- 해외마케팅 지원시 접촉한 우수바이어, 국내 무역인·컨설턴트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국가(지역)별, 품목별 또는 개인별 미팅, 전화·이메일·편지를 통해 도내 우수상품의 외국대형마트 진출의 물꼬마련 등 판로개척과 연계시키는데 도움을 받음

(3) 중앙 및 시군 등과의 협력 강화

○ 중앙부처와 연계강화

-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통상활동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여 도에서도 지역내 수출유관기관 중심으로 통상지원 활동을 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지원 정책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음

- 앞으로는 수시로 지경부 및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중소기업 및 농가의 통상지원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중소기업 통상지원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함

- 특히 농식품부의 100억\$ 수출목표('12年)시책과 연계하여 농산품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충남 농산물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시군과의 연계강화

- 충청남도의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인 농수산물 수출의 경우 시군의 관심 노력여하에 따라 실적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지만, 천안·논산·부여·공주 등 일부시군 외에는 관심이 희박함

- 따라서 시군과 협조를 긴밀히 하여 對美수출판촉전, 수출간담회, 웰빙식품엑스포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농수산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수출증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웰빙·식품·건강·한류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농수산물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합동 도시군간 농수산물 수출대책회의, 시군 농산과장 회의시 道 통상지원과장이 참석하여 수출독려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 道の Control tower 기능 강화

- 현 정부 들어 kotra와 중진공의 업무기능 조정을 통해 중진공은 국내 중소기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kotra는 해외 수출지원에 전담하도록 기능을 조정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진공

의 해외마케팅 역량이 상실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차질과 수출관련 중소기업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극대화를 위해 통상지원에 대한 충청남도의 총괄조정기능 수행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통상기관·단체·업체 실무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도 차원의 통상지원 조정기능을 정립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4) 해외마케팅 활성화 시책 구상 (2010년)

○ 해외바이어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 매년 개최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수출로 연계하는 활동 강화

○ 해외무역관 주재관 회의 개최

- 道 해외무역관 주재관 및 활용도가 높은 유관기관(道 + kotra + aT) 등의 해외주재관을 초청하는 회의 개최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단의 확보 및 수출성과 극대화를 도모함

○ 농수산물 해외시장 거점 에이전트 사업 추진

-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해외 대형 유통매장에 충청남도 농수산물 상설매장 개설, 농수산물을 수입해 가는 해외에이전트에 매장 신규입점 등록비, 기존 판촉요원 인건비·홍보비·시식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농수산물 수출극대화

- 국가 공동브랜드(취모리 ) 사용확대 추진
- 농림수산물부 지정 수출 신선농산물에 사용되는 국가 공동브랜드를 수산물과 도내 주요 농산물로 확대 추진을 하여 도내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확대

-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대폭 확대
- 세계 유명 전시박람회는 타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으므로 도내업체의 적극적인 참가 및 지원확대를 추진함
- 지역별, 품목별 전문박람회 엄선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한·미, 한·EU 등 FTA협상 발효시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진성바이어 발굴을 추진함

- 2010 상해엑스포 계기 해외마케팅 강화
- 세계 최대규모로 개최되는 상해엑스포('10.5.1~10.31)를 계기로 도 내상품 및 충남브랜드 집중 홍보
- 2010년 상해엑스포 기간에 개최되는 사업에 집중 참가하도록 지원 함 : 전자부품전(4월), 국제건축자재전(8월), 산업박람회(10월)시장 개척단, 각종 특판전 등

- 상해엑스포장 인근에 「인상명품관」 개설 운영('10. 5월)

(5)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확충

- 통상지원과의 신설에 따른 통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해외마케팅 전문인력·기능 보강을 위해 무역전문 계약직 1

명 을 보강할 계획으로 공업7급으로 정원을 확보함

-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해외마케팅 전담 전문계약직으로 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마케팅담당(계) 신설 등 무역 전문조직화의 검토가 필요

4)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 및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 앞에서 정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의 한계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장기적인 충청남도 통상지원 비전과 전략이 정립되지 않아 통상지원 정책이 당면한 위기극복 및 단기적 현안인 수출 진흥에 대해 단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둘째, 통상지원의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모두 나열되어 있어 한정된 통상지원 자원을 집중화하여 통상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셋째, 충청남도 소재 대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가 있지만 이들 대기업과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과 통상활동 측면에서 협력관계 시스템이 없음. 따라서 이들 대기업의 수출역량을 연계하여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넷째, 충남은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의 미래 비전은 미래의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중소기업 인력의 구조, 전체적인 국가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내수시장의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통상지원 정책방향정립이 필요함

다섯째, WTO, FTA 등의 확대는 충청남도가 향후 직면하게 될 국제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통상지원 정책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여섯째,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통상지원은 개발도상국 시장 그 중에서도 중국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경제의 부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남으로서는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좋은 기회이자 위기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도내 부가가치가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술력 격차를 좁혀오고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음
 - 반면에 중국 경제의 발전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품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무한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고, 아울러 중국시장에 직접투자를 위한 기회도 열려 있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미래 충남 통상지원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마케팅을 통한 국제거래활성화 등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통상환경변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가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충청남도 통상지원 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통상지원 활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궁극적인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의 한계점과 과제를 충청남도의 기업이 처한 통상환경변화와 관련지어 장단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함

3. 충남 통상지원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1) 충청남도 통상지원 환경변화

- 충청남도 통상지원의 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의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향후 10년 후의 대한민국과 충청남도가 직면하게 될 사회, 경제, 산업구조 그리고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함
- 첫째, 사회구조 면에서 미래의 한국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이 예측됨
 - 이미 충청남도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농촌은 가까운 장래에 농업의 구조가 젊은 경영인 중심의 기업농 중심의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농업의 기업농화 그리고 젊은 농업경영인의 등장은 통상지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경제구조 측면에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구조를 고착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빨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저성장경제구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제조업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성장동력 산업의 활발한 유치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던 충청남도가 제조업의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과거와 같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출의 확대를 위한 통상지원 환경이 어려워짐을 예상 할 수 있음
- 셋째,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미래의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 등 앞서간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현상으로 이러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진전 속에서도 미래에는 인구의 고령화, 의료장비의 고가화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넷째,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이 가시화되고는 있고, WTO, FTA 체결 확대 등 국제통상 시장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상지원 및 수출의 확대를 위한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여건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님
- 미국의 경기침체, 재정적자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보호무역 추세의 강화, 그리고 그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개방된 시장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온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에 대한 통상지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도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적자 해소 및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아시아 순방연설에서 천명)
- WTO 및 FTA 규범에 따르면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활동에 대해 공정한 국제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통상지원 활동이 필요함
- 중국의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대외 수출 여건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중국은 현재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내수 수요의 확장과 산업 활동을 위한 주요 원부자재의 조달을 한국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 단계에 이르면 중국의 주요 생산품과 한국의 현재 주요 수출 품목이 중국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품이 중국과 차별화된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시장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미래의 경쟁 환경은 더욱 경쟁적이 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유통체계를 개척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off line 시장을 인터넷 마케팅을 통한 on line 시장으로 대체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와 초기 유통시장 개척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 따라서 통상지원의 미래비전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를 활용하면서 통상지원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충청남도 통상지원 비전의 기본방향

○ 위와 같이 미래에 충청남도의 경제 및 통상지원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통상지원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이러한 통상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통상지원 비전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첫째,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의 저성장구조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지원의 비전을 설정해야함

- 둘째, 충청남도의 한정된 통상지원 역량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이 통상지원 활동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함

- 셋째, 그 동안 충남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음. 이러한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통상지원 정책의 비전을 설정해야 함. 충남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을 연결시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지원 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 넷째, 그 동안 충남의 고도경제 성장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충남의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충남도내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투자의 한계비용이 낮은 내포문화권 등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상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내포문화권의 주요한 산업은 농수산물, 인삼제품 중심으로 이러한 산업의 수출이 증진될 수 있도록 통상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WTO, FTA를 비롯한 경제의 개방화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하고 상품무역에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으로 국제무역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한 비전 설정이 필요함

- 여섯째, 정보통신/교통의 발달,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상지원 정책의 방향을 구상해야 함

- 일곱째, 중국경제의 성장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수출증진을 위한 최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중국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증대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한 통상지원 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정책 비전의 설정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구의 온난화 가속화로 인하여 저탄소, 저에너지 사용 등 녹색성장 산업의 활성화를 고려한 통상지원 활동 중심으로 통상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4. 충남 통상지원의 장·단기전략

- 앞에서 정립한 충청남도 통상지원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충남 통상지원의 구체적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충남의 한정된 통상지원 역량을 집중화하고 차별화하여 통상지원자원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수출구조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통상지원 활동을 집중화할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통상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충남 중소기업의 통상지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파악하는 것도 충남의 한정된 통상지원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아래에서는 충남의 수출구조 특징을 분석하고 충남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할 것임.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통상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충남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선별하는데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충남 수출입구조의 특징

- (1)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높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이 취약한 점을 들 수 있음

-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비율을 보면 대략 32% 수준을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표 7> 중소기업 수출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총수출	284,419	325,465	371,489	422,007
대기업	192,056 (67.5)	220,967 (67.9)	252,484 (67.9)	291,290 (69.0)
중소기업	92,128 (32.4)	104,152 (32.0)	118,774 (32.0)	130,524 (30.9)
기타	234	346	231	193

자료: 관세청, 중소기업청

-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에 있어서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약87%인 반면 중소기업은 약 12.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및 다른 시도에 비해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내 대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대단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다른 시·도에 비해 충청남도에 건설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통상지원을 통해 수출을 신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사실, 중후장대형 산업이 지역의 중심적인 구조를 차지할 경우,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순한 하청구조는 중소기업의 채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
-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임

- 충남의 경우는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른 시도보다 심한 편으로 대기업이 차지하는 수출 기업수 역시 전국 평균 1.1%보다 높은 3.3%를 차지하고 있음(전국의 수출기업/대기업 : 871업체/79,188업체, 충남의 수출기업/대기업 : 60업체/1,844업체)
- 이러한 수출 중심의 대기업 구조로 인해 충남은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제침체 국면에서 수출이 2007년 478억\$에서 2008년 429억\$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 충청남도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에 21.7%로서 미국의 11%에 두 배에 이를 정도로 급신장하였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가운데 21.3%가 중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2008년도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 수출 가운데 30.9%가 중소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30.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8> 한국의 주요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실적(2008년)
(단위: 백만불, %)

국가별	총수출(A)	중소기업수출(B)	중소기업수출 비중(B/A)
전체	422,007 (100)	130,524 (100)	30.9
중국	91,389 (21.7)	27,787 (21.3)	30.4
일본	28,252 (6.7)	14,353 (11.0)	50.8
미국	46,377 (11.0)	14,490 (11.1)	31.2
홍콩	19,772 (4.7)	6,144 (4.7)	31.0
대만	11,462 (2.7)	4,838 (3.7)	42.2
중남미	33,267 (7.9)	5,295 (4.1)	15.9

중동	26,647 (6.3)	8,889 (6.8)	33.4
----	--------------	-------------	------

자료: 관세청, 중소기업청

- '09. 5월말 현재 충청남도의 수출액은 133억\$로,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51억\$로 충청남도 수출의 38.3%를 점유하고 있어 전국 평균 22.6%를 상회하고 있음

<표 9> 충청남도의 對중국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충청남도 ↔ 중국		전국 ↔ 중국		충청남도 수출점유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9.5월까지	5,144 (0.1)	677 (△51.7)	30,136 (△23.9)	20,597 (△35.8)	17.1%
2008년	12,216 (△24.8)	3,088 (△17.4)	91,389 (11.5)	76,930 (22.1)	13.4%
2007년	16,242 (67.4)	3,737 (40.5)	81,985 (18.0)	63,028 (29.8)	19.8%
2006년	9,702 (17.2)	2,661 (32.6)	69,459 (12.2)	48,557 (25.6)	13.9%
수출순위	2006년 ~ 2009. 5월까지 중국 수출시장 점유율 1~2위				

(3)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은 도내 대기업에 비해 중국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음

- 충청남도의 수출이 중국시장 의존도가 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국경제가 호황일 때는 크게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충청남도의 수출이 심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음
- 아래 표의 대중국 교역품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국은 도내 대기업으로부터 중간재 및 원료를 구입하고 원자재 및 부가가치가 낮은 플라스틱제품을 도내로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도내 중

소기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옆에 두고 있으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저부가가치 제품을 갖고는 중국제품과 경쟁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도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중국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있고 유통물류비용 측면에서 도내 중소기업보다 유리하여 점점 경쟁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
- 또한 국내시장에서도 저부가가치 제품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래 표의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반도체,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중심의 특정제품에 치중되어, 일반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미미한데, 이는 중소기업 제품은 개별적인 소규모 진출이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의 특성상 단순한 가격경쟁력보다 브랜드 파워가 기업경쟁력 좌우하여 주소비층인 중산층은 일본 및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고, 한국제품 가운데는 삼성, LG,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은 인지도가 높아 구입하지만 중소기업 제품은 인지도가 낮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전략과 통상지원 활동을 전개해야만 함을 알 수 있음

<표 10>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역품목 현황

(단위 : 백만\$, 전년 동기대비 %)

품 목 명	수 출		품 목 명	수 입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평판디스플레이	2,315	68.2	석탄	76	△66.5
반도체	858	△7.4	원유	67	△53.4
석유화학중간원료	412	△30.4	플라스틱제품	51	395.3
합성수지	280	0.1	전선	50	△45.4
석유제품	279	△44.4	건전지및축전지	39	8.3

(4) 충청남도의 중국시장공략 마케팅 추진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적인 체계적인 통상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충청남도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일부성과를 거두고 있고 상해무역관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 개척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에는 제한적 실적만을 거두고 있음
- 이는 잠재적으로 거대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내수시장을 도내의 중소기업이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상지원 체계구축 및 활동의 전개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음

<표 11> 충청남도의 대중국 시장개척 수단을 통한 수출실적

주 관	명 칭	시기	참가 규모	참가 성과 (계약추진액)
道	중화권 시개단	2008.3.31~4.9	7업체	720천 \$
	중국 북부 시개단	2009.3.2~3.5	8업체	22,114천 \$
	중국 상해화동 수출상품교역회	2009.3.1~3.5	11업체	2,030천 \$
	중국 남부 시개단	2009.6.1~6.6	8업체	2,010천 \$
道 (상해 무역관)	※ '09.6월까지 「상해무역관」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성과 - 8회, 26업체 / 626만 \$ (수출상담), 311만 \$ (계약 추진)			

(5) 농산물 수출 및 인삼제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적인 농업도인 충청남도의 농수산물
과 인삼가공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향후 농수산물 수출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려는 농식품
부 및 지식경제부의 정책을 활용한다면 충남의 농수산물 및 인삼
수출의 신장이 가능성 있음을 말하고 있음

<표 12> 충남의 농수산물 및 인삼 수출현황

구 분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수산물 수출(백만\$)	155	303	355	400	500
인삼 수출(백만\$)	60	69	80	85	90

2) 중앙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통상지원제도

○ 한정된 통상지원 인력, 예산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가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

으로서는 중앙정부 및 기관의 통상지원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견지에서 아래에서는 중앙정부 및 기관에서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활동 가운데 충청남도가 활용 가능한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

-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으로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초기위험의 부담경감
및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표 13>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단위: 개, 억원,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원업체	26	48	87	160	184	234	244	257
지원예산	1,100	1,800	2,217	3,075	3,964	5,870	7,077	7,786
수출실적	88	91	89	154	207	240	297	380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관련통계, p. 213)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 중소기업 가운데 해외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브랜드인지도
가 부족한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사
업
- 브랜드 기초조사, 브랜드 전략컨설팅, 브랜드개발 및 브랜드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 글로벌 협력사업

-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기술협력,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해외협력기반 조성, 기업간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중소기업 가운데 자력으로 수출능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교육, 해외시장 정보제공, 홍보, 해외마케팅 등 수출초기단계 지원 TOOL을 기업역량에 맞게 패키지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

- 중소기업 제품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바이어에게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지원(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 제작지원, 기업블로그 제작지원, 디렉토리 제작지원, 웹 타겟마케팅 지원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앞에서 충청남도 통상지원의 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변화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인터넷 마케팅 활성화가 관건으로 향후에 많은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4>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홈페이지(개) 등 기업공개	2,612	2,612	2,612	2,622	837	1,568
상품정보(개)	13,060	16,955	20,837	10,591	4,152	6,542
수출액수(천불)	152,829	163,713	172,293	232,995	241,539	278,126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관련통계, p. 213)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

○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민간전문기관(민간해외지원센터)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해외현지의 민간컨설팅, 마케팅회사 등을 민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컨설팅 비용의 90%-70%를 지원하는 사업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 중소기업 종업원 가운데 해외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 **글로벌 전략품목 수출 컨서시엄**

- 수출주력품목 생산 중소기업간 수출컨서시엄 구성으로 해외유통망 개척 및 글로벌기업 직접 진출지원하는 사업

○ **무역촉진단 파견**

-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틈새 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지원

- 외국어 전문이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지원을 통해 협상력 및 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중소기업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 중국 시장을 옆에 두고 있고 중국과 보완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저부가가치 중소기업 제품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중장기적 도내 통상지원 활동에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

<표 15> 중소기업 해외투자 현황

(단위: 개, 천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전체해외 투자(A)	건수	9,431	10,727	12,829	11,257
	금액	7,052,607	11,566,115	21,798,798	21,855,432
중소기업 투자(B)	건수	4,402	4,948	6,157	5,830
	금액	2,330,832	3,370,888	6,091,294	5,877,514
중소기업 비중(B/A)	건수	46.7	46.1	48.0	51.8
	금액	33.0	29.1	27.9	26.9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 2007년과 2008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을 보면 아시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한 투자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6> 지역별 중소기업 투자현황

(단위: 개, %)

구분	2007	2008
계	6,157(100)	5,830(100)
아시아	4,688(76.1)	4,231(72.6)
북미	767(12.5)	802(13.8)
유럽	322(5.2)	373(6.4)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의 기술무역 지원

- 미래에는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을 해외에서 이전 받거나 국내의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이 특허 받은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충청남도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통상지원 활동의 하나가 될 석 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인력과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예측됨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무역수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2007년도에 기술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도내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여 기술무역수지의 흑자를 만들어내는 지원 활동이 필요함

<표 17> 중소기업의 기술무역수지(2007)

(단위: 백만달러)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구성비(%)
대기업	1,88.3	3,938.2	2,055.1	70.3
중소기업	234.5	1,146.0	-911.5	31.2
비영리법인 및 기타	60.7	19.2	41.4	-1.4
계	2,178.2	5,103.5	-2,925.1	100

-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통상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해외 시장조사대행 서비스 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재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

3) 충남 통상지원의 장·단기전략

- 위와 같은 통상지원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통상지원 비전 그리고 충남의 수출입구조 특성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통상지원 장·단기전략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음

(1) 대기업은 시장원리로 하고 중소기업 통상지원 전략에 중점

- 충남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중심의 대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충청남도의 통상지원 활동은 대기업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도내의 중소기업 및 농수산기업에 지원활동을 집중하는 전략이 효율적임
-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지원은 직접적 성과 및 당장의 성과보다는 일자리창출 등 간접적인 측면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의 통상지원 정책에 집중하되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결과를 높게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대기업과 비교해 경쟁력 측면에서만 평가하지 말고 사회적 효과를 포함해 평가해야함

<표 18> 주요국별 중소기업 현황

구분	한국(2007)	일본(2007)	대만(2007)	미국(2006)
사업체수	118,056 (99.5)	254,493 (98.6)	133,312 (96.6)	295,601 (89.3)
고용(천명)	2,200 (76.9)	5,891 (69.3)	2,180 (76.7)	6,056 (44.4)
출하액	4,456,355(억원) (47.1)	158,362(10억엔) (47.2)	402,414(천만원) (30.2)	
통계기준	종업원(사업체) 5인이상, 300인 미만	종업원(사업체) 4인이상, 300인 미만	종업원(사업체) 200인 미만	종업원(사업체) 500인 미만

자료: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대만(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미국(중소기업청)

(2) 충남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전략 필요함

- 충청남도의 통상지원 활동의 대상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과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촉진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함
- 앞에서 분석해 본 것처럼 도내 일반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미미한데, 이는 중소기업 제품은 개별적인 소규모 진출이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임
- 또한, 중국 내수시장의 특성상 단순한 가격경쟁력보다 브랜드 파워가 제품의 구매력을 좌우하여 주소비층인 중국의 중산층은 일본 및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고, 한국제품 가운데는 삼성, LG,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은 인지도가 높아 구입하지만 중소기업 제품은 인지도가 낮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구조전환과 통상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전략이 구사되어야함

(3) 중앙정부 및 기관의 중소기업 통상지원 정책 및 활동의 활용을 통한 충남 통상지원 활동의 효율화

- 한정된 통상지원 인력, 예산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가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 으로서는 중앙정부 및 기관의 통상지원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견지에서 위에서 정리한 중앙정부 및 기관의 중소기업 통상지 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농수산물 수출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려는 농식품부 및 지식경제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충남의 농 수산물 및 인삼 수출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

(4) 충청남도내의 영세수출기업 중견기업화를 통한 수출기업화 전략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충남 중소기업의 규모별 수출업체는 10만 달러 미만이 45.5%를 차지하고 있고, 30만 달러 미만이 57.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출이 신장될 수 있 도록 통상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 19> 충청남도 규모별 수출업체 현황(2008년도)

금액별	계	10만\$미만	10만\$이상 30만\$미만	30만\$이상 50만\$미만	50만\$이상 100만\$미만
업체수	1,570 업체	715	194	101	121
분포도	100 %	45.5	12.4	6.4	7.7

금액별	10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이상 500만\$미만	500만\$이상 1,000만\$미 만	1,000만\$이 상
업체수	92	62	75	83	127
분포도	5.9	3.9	4.8	5.3	8.1

(5) 농수산물 및 인삼제품 수출지원에 중점을 두는 전략 필요

- 전통적인 농업도인 충청남도의 농수산물과 인삼가공품의 수출이 지